

김갑주(국사학)교수  
경주캠 부총장 재취임



93년부터 96년까지 부총장을 역임했던 김갑주(국사학·문학박사)교수가 김병기 부총장에 이어 지난 4일자로 경주캠 부총장으로 재임명되었다.

이번에 부총장으로 임명됨으로써 2번째 부총장직을 맡게된 김갑주교수는 취임인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학으로 자리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내년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1년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영석 동문, 히말라야 마칼루·마나슬루봉 도전

박영석 동문이 이끄는 '98 동국대학교 마칼루·마나슬루 원정대' 출정식이 지난 27일 서울캠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박영석 동문은 그동안 히말라야 8천미터급 이상 고봉 14개 중 9개 봉우리의 등반을 마쳤다.

본교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 중 하나인 이번 원정이 성공하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히말라야 8천미터급 이상 고봉 11개 등정의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

모두 동국산악회원인 이번 원정대의 대원들은 단장=이인정(상학과 72졸) △대장=박영석 △행정=김정우(무역 94졸) △장비=유진욱(통계 95졸) △수송=박강모(토목공3) △의료=윤영남(컴공학부2) △식량=심상일(국민윤리 92졸)으로 본교 졸업생 및 재학생이다.

원정대는 내일(1일) 카투만두로 출발해 10월 16일에 마칼루봉(8,463M), 11월 17일에 마나슬루봉(8,163M) 정상에 오를 예정이다.

### 김중구 전 법무부장관 객원교수로 초빙

김중구 전 법무부장관이 법과 대법학과 객원교수로 초빙돼 새학기부터 형법각론 강의를 맡게되며, 김진선 현 강원도지사는 사과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임명됐다.

또한 한병삼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문과대 사학과 석좌교수로 임명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공로명 전 의무부장관이 사회과학대학 아시아지역학부 석좌교수로 재취임됐다.

한편 2학기부터 강단에 서게 될 객원교수는 모두 10명, 겸임교수는 모두 13명이다.

# 본교 구조조정 9월중 가시화

### 경영진단팀, 팀제·연봉제등 7개안 제시...설명회(서울 4일·경주 8일) 및 공청회 개최

대학구조조정이 현실로 다가왔다. 각 대학들이 속속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본교는 지난 3월에 착수한 '비전 21세기 동국' 경영진단팀(팀장=송계전·IG경제연구원 수석 컨설턴트 이하 경영진단팀)의 작업이 완료되는 9월중에 구조조정안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단팀이 제안한 구조조정안은 크게 △교육개혁의 가속화 및 질적내실화 △팀제 운영 개편 및 인력 재배치 △근로계약의 합리성 제고 등 7가지로 나뉘는데 이번 구조조정은 교육개혁과 재원확보를 제외한 5개 부문을 중심으로 실행된다.

이중 일부 스텝을 단과대로 재배치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팀제 운영개편 및 인

력 재배치'와 실질적으로 연봉제를 의미하는 '성과주의 정착을 위한 급여체계의 재설계' 부분이 핵심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물론 경영진단팀이 제시한 내용을 학교측이 얼마만큼 수용하느냐에 따라 논쟁의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고위층과 상당한 교감이 있었다"는 한 관계자의 발언은 상당부분 실행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6개월여간 작업을 이끌어 온 송계전 경영진단팀장은 "다른 대학들의 혁신적인 개혁이 놀라울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다"며 "가치를 극대화 시키려는 마인드가 구조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조조정 내용을 알리고 구체화하기 위해 서울캠퍼스는 오는 9월 4일, 경주캠퍼스는 9월 8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학내 여론수렴을 위해 9월 23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 전체교수회의 및 교수총회 열려

### 유덕기 교수 신임교수총회장으로 피선

98학년도 2학기 서울·경주캠퍼스 전체교수회의 및 교수총회가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경주캠퍼스 간 원격 영상회의로 개교 90주년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렸다.

3백여명의 교수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 중 학사보고회 자리에서 오복원 이사장은 차사를 통해 "학사운영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절실하다. 예산 편성·집행에 근거·절약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교수의 본분은 학문연구이기 때문에 총장 선출문제에 무리하게 신경쓰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총장직선에 대한 반대여론을 내비쳤다.

뒤이어 진행된 서울·경주 합동교수회의에서 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 교수가 6대 교수회 총회장으로 피선됐다. >관련기사 2면 투표는 교수회칙에 의거, 특정 입후보자 없이 모든 교수가 후보와 유권자의 자격으로 실시됐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어 유덕기 교수와 박준규(교육학) 교수를 두고 2차투표가 치러졌고 "총장선출에 있어서 직선제를 존중하고 수행하겠다"고 소견을 밝힌 유덕기 교수가

차기 교수회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서울캠 교수회 부회장은 김한(영문학) 교수, 감사는 차수련(경영학) 교수가 선출됐으며, 경주캠 교수회 회장은 오홍세(국문학) 교수, 부회장은 함경수(전자계산학) 교수, 감사는 김상묵(행정학) 교수가 결정됐다.

이석윤 교수 외 8명 정년·명예퇴임식  
오늘(31일)자로 퇴직하는 교직원들의 정년·명예 퇴임식이 지난 21일 총장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공로패 수여, 총장과의 면담, 오찬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퇴임을 하는 교직원들은 이석윤(철학) △이종찬(국어국문학) △김태부(수학) △유영상(가정교육) △오복용(경주캠 사회문화교육원 교학과장) △임규빈(경주캠 교무처 학적팀장) △정영수(총무과) △황만수(총무과) △김장욱(총무과) 이상 총 9명이다.

## 통일대축전 탄압 속 성사

### 경찰, 형광액 난사·5백여명 연행...판문점 행사 무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상임의장=강희남 이하 범민련)와 한총련(의장=손준혁·영남대 총학생회장)이 공동주최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과 '민족의 자주와 대안결을 위한 9차 범민족대회'가 경찰의 강경한 탄압속에서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2천 5백여명의 시민과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1차 수해활동보고 및 통일대축전 9차 범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한총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로 △범청학련 통일한마당 △98 범민족회의와 범청학련 3차 총회 △9차 범민족대회 개막식 △대축전 남측추진본부와 9차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공동기자회견 △남, 북, 해외 연석회의의 보고대회 및 판문점 출정식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그러나 15일 진행 예정이었던 판문점 관련행사는 경찰의 탄압으로 무산됐다.

한편, 이번대회를 치르는 동안 강화남 상임의장을 비롯한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이 구속 수감되었으며, 5백여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연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 28일 97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97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서울캠은 지난 28일 본관 중강당에서, 경주캠은 지난 25일 11시 소강당2에서 열렸다.

학사학위 수여자는 총 3백53명(서울캠 2백28명, 경주캠 1백25명)이며 석사학위 수여자 총 2백96명, 박사학위 수여자 총50명 등으로 각 대학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대학원=석사 1백14명,

박사 50명 △불교대학원=석사 7명, 관리자과정 32명 △행정대학원=석사 51명, 관리자과정 19명 △경영대학원=석사 35명, 관리자과정 16명 △교육대학원=석사 44명 △언론정보대학원=석사 15명, 관리자과정 4명 △산업기술원경대학원=석사 16명, 관리자과정 3명 △문화예술대학원=석사 7명, 관리자과정 20명 △지역개발대학원=석사 7명, 관리자과정 34명

## 보리수

### IMF 합병증을 이겨야

전 해 주(불교대 불교학부)

소부경전(小部經典)에 속하는 미린다광하에 보면 그리스의 미린다왕과 나가세나 왕의 다음과 같은 문답이 나온다.

왕이 물었다. "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사람(깨달아 열반을 증득한 아라한)도 괴로움을 느끼는가?" 나가세나 존자가 대답하였다. "육체적인 고통은 느끼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느끼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러합니까?" "육체적인 고통의 인(因)과 연(緣)은 계속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의 인연(因緣)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IMF 태풍 9개월을 맞은 우리 사회는 종산층이 붕괴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기업의 연쇄부도와 실업자의 급증으로 우리 이웃이 굶고 거리를 방황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매일 접하고 있다. 실업문제의 해소를 위한 우리 모두의 협조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전국을 휩쓸 수해는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난으로 인한 합병증이다. 경제적 위기가 닥치자 도둑과 사기가 늘고 심지어 자살하는 이들도 많다. 가족이 흩어지고 가장이 무너지는 소식도 심심하게 들리고 있는 것이다.

물질과 정신, 육체와 마음이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또 한편으로 물질계는 한도가 있다. 소유물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며,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 몸도 죽게 되어 있다.

방들어 몸이 아플 때 합병증이 오면 어렵듯이, 경제난에다 정신적 합병증까지 겹치면 자신은 물론 사회가 더욱 고통스럽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물질의 모자람보다 소유한 물질의 증감에 부합하는 마음병이 자신의 불행증 증폭시키고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깨달아 성숙한 이는 육체적 고통이 있더라도 정신적인 합병증은 없다. 실사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정신적으로 넉넉함을 잃지 말아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갔으면 한다.

## 본사시령

- ◇임 차장
- ▲취재 1차장=남대철(정보산업대 정보산업학부2)
- ▲취재 2차장=황성규(법정대 법정학부2)
- ▲취재 3차장=김미경(문과대 국어국문학부2)
- ▲사회 1차장=유철주(문과대 인문학부2)
- ▲사회 2차장=박양우(법정대 법정학부2)
- ▲문화 1차장=박영실(사과대 사회계열2)
- ▲문화 2차장=정희정(상경대 경상학부2)
- 이상 8월31일자

## 서명과 정에 감사드립니다

### 동국발전기금 기부(약정)자 현황

- ※ 발전 기금
- 구중서(문화예술대학원) 100만원
- 최수진(불교대학원) 1백만원
- 국제정보대학원 173천만원
- 김남숙(신도) 15만원
- 김동성(국제정보대학원) 3백만원
- 김우진(신문방송학과교수) 1백만원
- 김봉우(실용농경과장) 50만원
- 김성철(기타) 1만 원
- 김수호(행정대학원) 154만2천26백원
- 김영철(행정대학원) 1백만원
- 김요원(기타) 100만원
- 김준호 50만원
- 김중희(불교대학원) 100만원
- 김현주(행정대학원) 162만3천원
- 노미경(기타) 50만원
- 서병진(행정대학원) 1백만원
- 신경철(동문) 30만원
- 윤진홍(기타) 1만 원
- 유경규(신도) 1백만원
- 윤길복(신도) 14만원
- 윤해일(포항병원교수) 1백만원
- 이기옥(신도) 1만 원
- 이성진(지역개발대학원) 1백만원
- 이중열(기타) 1만 원
- 이태균(영의학과교수) 50만원
- 이해원(문화예술대학원) 1백만원
- 정현자(기타) 10만원
- 정혜원(학부생) 20만원
- 정호주(동문) 1백만원
- 재해문(기타) 50만원
- 조재근(동문) 20만원
- 주진홍(발전기금) 1백만원
- 차준환(교무과장) 50만원
- 최수진(불교대학원) 1백만원
- 태진희 40만원
- 한국RF 1천만원
- 관안순(행정대학원) 162만3천원
- 홍성룡(신도) 10만원
- ※ 불교종합병원김립기금
- 98신용교직원수련회참가자 18만 원
- 기순홍(기타) 10만원
- 강연희(기타) 10만10원
- 김태호(조경학과교수) 1백만원
- 강현숙(신도) 10만원
- 정숙정(신도) 1만 원
- 경주캠파스미술과교과2억4500만원
- 고창배(경주철학과교수) 1백만원
- 관영지(신도) 1백만원
- 김건이(신도) 1백만원
- 김경남(기타) 10만원
- 김경남(신도) 10만원
- 김기미(법인사무처) 142만원
- 김기홍(신도) 1만 원
- 김덕만(기타) 20만원
- 김덕생(동문) 30만원
- 김동남(신도) 10만원
- 김명철(요주스님, 동문) 100만원
- 김봉현(신도) 1백만원
- 김수정(신도) 10만원
- 김순홍(신도) 30만원
- 김순환(불교대학원) 50만원
- 김영기(신도) 30만원
- 김영재(기타) 10만원
- 김영대(기타) 10만원
- 김영대(기타) 10만원

## 동대신문

### 40년



평민국회  
생존을 위해서 오늘도 싸워야 하는 사람들  
아직도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들  
수재로 삼도 희망도 잃어버린 사람들

## 그러나 산을 오르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굴하지 않는 동국의 저력으로 살겠습니다

"여기는 낭가 정상, 앞이 하나도 안보인다."

여보, 성우야 성민아 아빠 해냈어!"

## 동대신문사

# 총대감사 7개 단대 · 2개 중앙기구 징계

## 불대 · 법대 · 경상대 · 총학 예산정지 4주이상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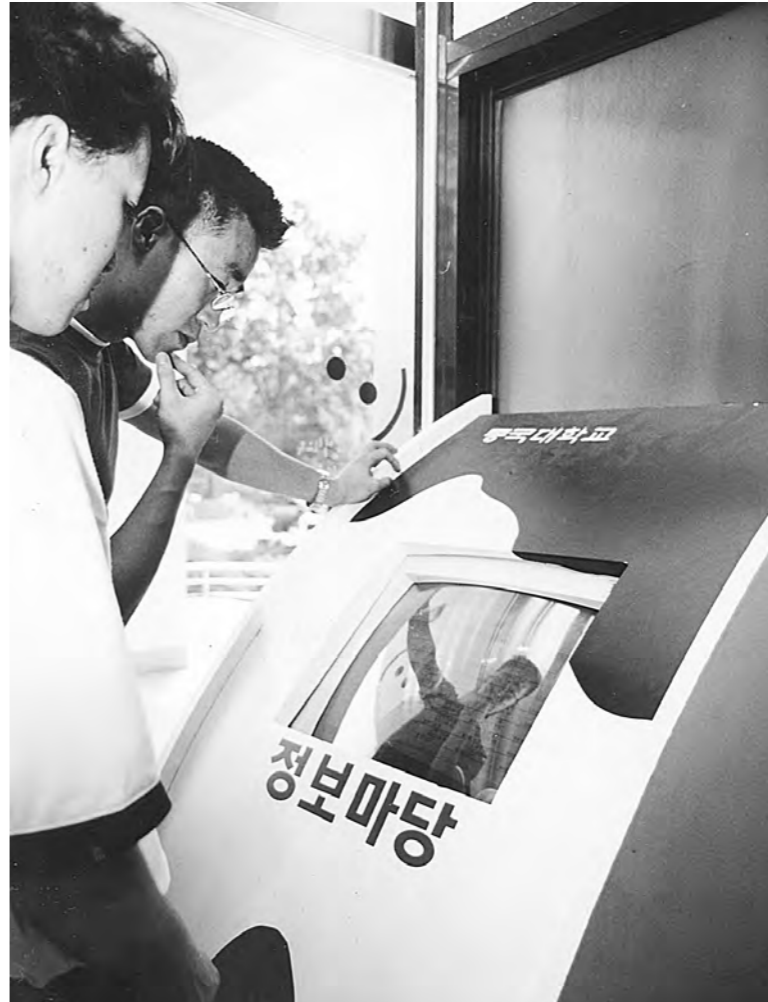
98학년도 상반기 통상감사 결과 불교대와 법과대, 경상대, 총학생회가 예산정지 4주 이상의 징계를 받는 등 총 7개 단과대, 2개 중앙기구에 징계가 내려졌다.

제30대 총대위원회(의장=신현찬·연명4 이하 총대)는 지난 6월 24일 총대의장과 총대부의장을 비롯한 8개 단과대 대의원으로 구성된 중앙감사특별위원회(이하 중앙감사특위)를 발족, 감사에 착수해 지난 10일 총 10개 단과대, 5개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 했다.

공개성, 객관성, 책임성이라는 기본 원칙과 감사시행세칙에 준해서 실시한 이번 98학년도 상반기 통상감사는 사업, 조직, 예산, 공약, 비품 등 총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 징계내용 및 사유는 <표>와 같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총대측은 "학생회 사업의 공개와 올바른 평가를 통하여 학생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실시했다"고 목적을 밝혔다.

징계내용	단위	징계사유
주 의	예술대	감사자료 미제출
	공과대/정산대	감사자료제출미비, 피감사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졸업준비위원회	감사자료 미제출, 추가자료 제출요구에 미비
경 고	생지대	감사자료 미제출, 추가자료 제출요구에 미비
	아총	감사자료 미제출, 추가자료 제출요구에 미비, 피감사 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경상대	감사자료 미제출,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자료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음, 피감사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예산정지 4주	총학생회	감사자료 미제출,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자료 제출 시한을 지키지 않음, 피감사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불교대	감사자료미제출, 추가자료제출요구에 미비, 예산감사에 있어서 예산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
예산정지 4주, 물질적 보상에 의한 하반기 예산 10% 삭감, 하반기 사업별 특별감사 실시	법과대	감사자료미제출, 추가자료제출요구에 미비, 예산감사에 있어서 예산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 피감사주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 집행 부서장들이 올바르게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



드디어 개강 방학전에 수강신청한 학생들이 개강준비를 위해 꼭 들르는 곳, 바로 본관과 해화관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정보마당이다. 사진은 강의과목·시간 등을 확인하는 학생들의 모습. 남대철 기자

### 회전무대

#### 적반하장

“O...“검문 앞에 허가 없는 현실이 슬퍼”  
지난 15일 광복절, 장충단 공원에서 열린 ‘노동자 통일한마당’에 반값지 않은 손님들이 있었다고.

알아본즉, 공원을 겹겹이 둘러싼 전경들이라는데.  
허기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검문하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들과 싸움까지 벌인 전경들은 양심이 있는 것일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준비서약서! 쓸 사람들은 따로 있었군”

#### 삐삐쿠울

“O...잡자는 동약의 삐삐콜. 호출도 하고 구내 전화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삐삐콜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수화기가 떨어져 나간 것이 있는가 하면 아예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는 것도 있다.  
이에 눈물을 머금고 공공전화를 향하던 한 학생 왈, “삐삐콜. 또 자를콜? 삐삐콜콜!!”

#### 한판(?) 장판(?)

“O...여성운동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을 위한 '98 여성연대한판'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명진관에서 있었다는데

행사에 참가하는 주최측에서 벽과 길바닥 여기저기에 포스터를 붙여 놓았으니.  
하나 행사가 끝난지 며칠이 지나도록 벽과 바닥에 붙여놓은 포스터를 떼어낼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여러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데.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98 여성연대는 한판이 아니라 장(長)판이군요”

#### 장충동 비둘기

“O...시도때도 없이 들려오는 공사소음, 학교에 피난처는 없다?  
녹두 사거리에서 본교 후문으로 오기까지 학생들은 경보음을 울리며 지나가는 차들을 피하느라, 배수공사 폐기물을 피하느라 진땀을 빼는 데.

간신히 교내에 들어서도 동국관은 화장실 공사로, 학생회관은 정보매체센터 공사로 시끌벅적하니.  
이에 한 학생 지적 하는 말, “들개는 소리에 가슴까지 멎는 장충동 비둘기 신세로군.”

## 연구비수주 우수 교수 선정

### 교수 조교들에게 1백만원씩 장학금 지급

97학년도 외부 연구비수주 실적에 우수한 교수의 조교들에게 1백만원씩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 수여식은 내일(1일) 11시반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열리며 97연구비 수주실적이 우수한 교수들은 다음과 같다.

△김태원(물리반도체과학) △신동혁(물리반도체과학) △성용길(화학) △이원부(정보관리학) △이병철(경영학) △오정수(산림자원학)

△김용욱(식물자원학) △윤현보(전자공학) △이진구(전자공학) △유승룡(건축공학) △김상규(토목공학) △신현호(화학공학) △이의수(화학공학) △황상주(경주캠퍼스 미술)

한편 지난 12일, 98학년도 저서 및 번역연구비 지원 연구비 수여가 있었다. 저서부문 및 번역부문별로 나누어 선발했으며 저서부문은 6백만원씩, 번역부문은 4백만원씩 수여됐다. 연구비 수혜자로 선정된 교

수들은 다음과 같다.  
▲저서부문 : △장영우(국문학) △강정구(사회학) △권동희(지리교육) △이행구(경주캠퍼스 불교학)

▲번역부문 : △구승희(국민윤리학) △황태연(정치외교학) △박현국(경주캠퍼스 불교학)

## 졸업기념품 신청

### 오늘(31일)부터 단대별로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김기석·몰리4 이하 졸준위)는 98학년도 졸업생들에게 기념품으로 도장(가격=1만 5천원)을 나눠줄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늘(31일)부터 9월말까지 각 단과대에서 받는다.

## 백경선 조합원 8대 노조위원장으로 선출



8대 직원노조 위원장으로 백경선(교육대학원 교학부) 조 합원이 선출됐다. 지난 6월18일에 열린 임시총회 및 8대 정·부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백경선 위원장은 “강력하고 의욕이 넘치는 집행

다음달 10일 이취임식  
부를 구성해 조합원의 권익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또한 부위원장은 이창학(연구교류처 연구부)·이대봉(총무처 총무과) 조합원으로 결정됐으며 오는 9월10일 직원노조 7·8대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치를 예정이다.

해서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제를 택한다면 가장 민주적, 자율적인 집단으로써 사회적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학이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에 실망을 안겨주는 꼴이 될 것이다.

“총장 직선제를 놓고 찬반론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장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성원의 분열과 파벌조성 등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현재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민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선거이다. 문제점이 있다고

남대철 기자

## 커피·차 1백50원

학내 자동판매기용 커피와 차 값이 기존의 1백원에서 1백 50원으로 인상된다.  
IMF체제 이후 급속히 원자재 값이 상승한 데 따라 단행된 이번 인상은 지난 5월 27일 열렸던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활) 7차 이사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내일(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사이버강좌 설명회

가상대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2학기 강좌로 개설된 사이버강좌입문과 사이버작문1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오는 2일 본관 중앙당에서 실시된다. 사이버강좌입문은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차례 진행되며, 사이버작문1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역시 2회 실시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위 두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이면 2회중 1회는 필히 참석해야 한다.

## 생협 출자금 환불

생협은 지난 26일부터 97학년도 후기에 졸업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중 생협 출자금을 납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출자금을 환불한다.

## “교수회 위상 바로잡겠다”

### 총장선거는 교수 직선제로 해야



지난 26일 열린 서울·경주 전체교수총회에 서 제6대 신입 교수총회장으로 선출된 유덕기(생명자원경제학) 교수총회장을 만나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교수총회장에 당선된 소감은.  
=지지를 보내 준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학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많은 교수님들께서 지지해준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어진 일들을 차분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5대 교수회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5대 교수회가 학내 제주체와의 연대를 통해 교수회의 기반을

확고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교수회의 위상정립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교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쓰겠다.

-교수회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가.  
=교수회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힘은 없지만 상징적 의미를 갖는 단체이다. 또한 학교와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견제적 입장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단체이다. 그러한 틀 거리 속에서 동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교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임기중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수회

와 학교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차기 총장은 교수회 규정대로 직선제를 통해 선출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권 남용과 원칙없는 일방적인 규정 개정, 인사 등을 견제하겠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교수들이 교수회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남대철 기자

## 동국참사람봉사단 사회봉사 단원모집

98학년도 가을학기 사회봉사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재학생, 교수, 직원』
  - 신청서접수기간 : 98. 9. 7(월)~9. 15(화)
  - 봉사활동기간 : 98. 9. 21(월)~98. 11. 30(월)
  - 접수처 : 학생처 장학과 ☎260-3050
  - 봉사결과 : 기간내(3개월 동안)에 33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마친 학생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학점(자유선택, 사회봉사 1학점Pass)을 부여하며, 취업·진학을 위한 사회봉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고, 재학기간 중 계절별(봄, 여름, 가을, 겨울)로 1학점씩 2학점까지 인정함).
- 개인 및 단체접수를 환영합니다.
  - 봉사대상단체와 봉사시간 및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봉사대상단체도 추천받고 있습니다.

## 동국참사람봉사단장

## 특 별 시 험

- 시험과목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험시간(예정)
교양필수	RGC005	컴퓨터실습1	2	09:00~09:50
“	RGC009	실용영어2	1	10:00~10:50
“	RGC007	영어회화2	1	11:00~
- 응시자격 : 98학년도 신입생(1학년 복학생 포함).
- 전형료 : 과목당 30,000원.
- 최대신청과목 : 2과목(3학점)까지.
- 시험일시 : 98. 9. 5(토) 09:00~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8. 8. 31(월)~9. 1(화)
- 접수처 : 교무처 교무과(접수시 반영합관 사진1매 지참)
- 전형방법
  - 컴퓨터실습1 : 제시된 문제의 답안을 디스켓에 저장한 후 이의 내용을 평가-인터넷 정보검색, 엑셀, 파워포인트 등
  - 실용영어2 : Native Speaker가 녹음한 테이프로서 시험실시후 평가.
  - 영어회화2 : 5가지 항목의 평가기준(발음, Accent, Intonation, 문장구조, 어휘의 풍부성)에 근거하여 외국인 교수와 Interview로 전형.
- 합격자 발표 : 98. 9. 9(수)
- 성적등급 표시 : 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A+, A를 부여.
- 기타 : 고사실은 원서 접수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교 무 처 장

## 98-2학기 제차 외국어교육원 특강

구분	ENGLISH CONVERSATION				COMPOSITION	TOEIC	LISTENING
	BASIC	I	II	III			
오전	Angelika Gatos (강희선 A)	Bridget McGrath (강희영 B)	Nicholas Garrison (L309)	Paul Sather (L310)		Robert Burell (LAB C)	Ross O'Connor (LAB D)
오후	Troy Body (강희일 A)	Bruce Dawson (강희영 B)	Paul Treadway (L309)		Irene Hansen (L310)	Joseph Schouweiler (원.수.목.금-LAB C 화-K208)	Eric Prochaska (원.수.목.금-LAB D 화-K209)
수강료	50,000원				40,000원	30,000원	30,000원
기간	98. 9. 7~10. 20(6주)						
접수처	외국어 교육원(동국관 L동 2층) 260-3470~1						
접수기간	98년 8월 31일 부터(선착순 마감)						

## “장터몰이”를 찾습니다

끼를 발취 못해 안타까우신 분들, 나 아니면 누가하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출연료를 드립니다.  
참가자의 공연소재는 노래, 풍물, 에어로빅, 개그 등 장르에 상관없고 공연시간은 수요일 12:00~1:00까지입니다.

## 여 학생 부 처

## 실직자 자녀 아르바이트 신청 안내

IMF 관리체제하에 기업들의 부도사태로 많은 실직 또는 임금체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직자 자녀에게는 아르바이트를 우선 알선코자 하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접수기간 : 8월31일(월)~9월11일(금)  
접수장소 : 취업과(본관3층, ☎260-3054)  
준비물 : 사진 1매

## 취업과

##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

- 기간 : 98. 9. 2(수)~9. 4(금)-3일간.
- 장소 : 교내 컴퓨터실습실.
- 대상 : 전교생(수강 미신청자는 이번 기간에 수강신청할 것)
-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일 때부 : 각 대학 교과과 및 학과(부) 사무실.
- 유의사항
  - 개인별로 배부되는 수강신청확인원에 본인의 수강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사용자 발생한 경우, 정정원을 작성하여 학업지도교수 및 학과(부)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PC정정후 교과과에 제출할 것.
  - 확인지도교수 및 학과(부)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정정원 지참시만 교내 컴퓨터실습실로 접수.
  - 교과목, 학수번호, 강좌번호 및 담당교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동일 교과목의 이중 신청시 학점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 수강한 과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하기 바람. 단, 재수강은 신교육과정 교과목 성적취득자에 한해 가능함.
  - 수강신청 정정기간에는 교양 및 일부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인원을 제한하며, 수강제한인원 범위내에서만 수강신청 정정이 가능함.
  - 시간외의 변경사항(분반, 폐강)은 조정강의시간표 및 각 대학 교과과에서 확인하기 바람. 자세한 수강신청 정정요령은 종합강의시간표내 메뉴얼을 참조하기 바람.

## 교 무 처 장

대학구조조정 논란

논단

학내구성원 논의와 의견수렴이 구조조정 시발점

우리나라 경제가 IMF관리 체제로 들어간 이후, 경제분야에서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간 빅딜에 대한 논의와 그 실행정도의 문제가 거의 아무런 여과없이 대학(교육)사회로도 옮겨 왔다. 앞으로 유사학과 통폐합 구조조정계획 수립과 추진의지,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대학 구조조정과 교수임용의 투명성, 타교출신 교수채용실적, 교수연구실적 등에 관한 교원인사제도 합리화 정책에 소홀한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두 분야를 공통필수 심사분야(배점 30점)로 하고, 선택분야(70점)로는 학생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학생선발, 대학별 교육개혁 실천 등을 제시하여 대학별로 자신있는 한 분야를 택해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그 동안 40곳을 선정해 왔던 교육개혁평가 우수대학을 올해엔 20~30곳 정도로 줄여 총 2백억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등급과 점수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모든 국립대에 대

한 삼성경제연구소 등 외부 연구소의 경영 진단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학교의 통폐합과 외국대학 또는 국내기업의 지방 국립대학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이어서 교육부는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학교법인끼리 비교 우위가 있는 학과와 학부, 단과대학 등 학교 일부를 떼어 교환하거나 매각, 증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그 동안 '나눠먹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국립대학의 보직교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구조조정안이 우리사회를 '개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대 구조조정안이 대학사회에서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어쨌건 간에 서울대의 구조조정안이 다른 대학 구조조정안에 대한 하나의 모델 또는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서울대가 제시한 구조조정안의 원칙은 △연구 중심, 대학원 중심대학을 지향하며, 학사과정만으로 완성되는 교육은 가급적 지양하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기초학문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첨단학문을 강조하며 △대학의 문화

개발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이 구조조정안이 그 내용과 성안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이의를 즉각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대 교협은 2+2 대단위 학부대학안은 국제적인 조류에 역행하는 비현실적인 학사제도이며, 2+4 전문대학원안은 연구중심의 서울대학교 미래상과는 거리가 먼 전문대학원 중심(특히, 법대, 경영대, 의대 등)대학으로 가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그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이 구조조정안은 각 대학의 대표성이 없는 구조조정 실무위원이 작성한 초안을 관철한 것으로 충분한 학내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으며, 대학의 의견을 공청회나 충분한 토의 없이 불과 10일 만에 제출하라고 졸속으로 시작되었고, 그래서 학칙마저 위반했다고 교협은 그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대가 정부 지원과 우수 학생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도 지식생산력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점에서, 서울대의 틀 다시 짜기는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는 기초학문 연구에 집중하지는 소극적인 연구중심대학이나 또는 급진적인 서울대 폐교론 보다는, 우리사회에 지역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대학을 지역 특성, 대학별 인적자원과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소수의 단과대학 중심으로 그 틀을 다시 짜는 것이다.

이러한 전국적 차원의 국공립대를 다시 짜기는 구조조정 수준을 넘어서서 사립대학에도 파급 효과를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국 사립대학도 국공립대 통폐합의 결과를 개별 사립대 틀다시짜기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서울대 구조조정안은 민주적 의견교환 과정을 통한 합리적 의견 수렴이 대학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래서 서울대 교협은 '대학 구성원 사이의 공감 조성 실패'를 서울대 구조 조정안이 좌절 할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다.

불균형 발전의 틀을 깰 수 있는 국공립대 통폐합론이 바람직해 보인다. 국공립대 통폐합론은 서울대만이 아니라 전국 국공립

사설

구조조정, 적극 공론화 하자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교육의 질적향상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각 대학들의 구조조정작업이 분주하다.

각 대학들이 구조조정 개혁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사태를 주시하며 준비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교는 6개월에 걸친 외부 경영진단을 통해 현 행정조직 및 제반 문제들에 대해 평가를 완료하고,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가 오는 9월중으로 실시된다.

앞으로 이 시기가 중요하다.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학교당국이 떠나가고자하는 방향이 과연 올바른지 정당한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학교당국은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이해없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펴나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서울대는 연구중심의 대학·대학원 중심의 대학을 표방하며 2+4 체제의 학사모형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그 실효성 여부를 떠나 학내구성원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교육부와 학교당국간의 야합에 의해 합작된 밀실회동의 결과로 평가받는다. 형식적인 공청회 및 설명회로 학내여론들을 무마하려 하고, 아직도 공급자적 위치에서 교육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개혁을 외치는 실정이다.

학교행정과 교육개혁이 따로 갈 수 없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대학이란 특수한 공간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인 것이다. 지금 타 대학들은 구조조정속에 '교육개혁'을 목표로 치열한 공방전,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에서는 지난 학기 뜨거운 이슈였던 '학부제'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전혀 진전없이 멈추어진 상황이며, 이와함께 경쟁력에서는 또다시 일부 학과를 통합하는 안이 나왔다고 한다.

뒤쳐지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의 교육개혁에 학내구성원들은 깊이있는 논의로 본교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개혁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주캠, 총동창회비 소모전 끝내자

총동창회비 납부문제가 재론된 지 3년째를 맞고 있지만, 그 동안 적지 않은 우려곡절을 겪은 게 사실이다.

서울캠의 경우, 지난 96년 총학생회와 총대, 졸업생 등의 학생의견 수렴을 통해 동창회비 납부가 결정된 이후 97년에는 총학생회측의 합의문 유실로 '납부거부'라는 진통을 겪었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납부여부를 둘러싼 원칙적인 논의는 종식된 상태이다.

반면에 경주캠은 총동창회비 납부원년부터 명분론적인 마찰을 거듭해 납부거부의 움직임이 아직까지 거세게 일고 있다. 다행히, 지난 22일부터 열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총동창회 사무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총동창회와 결고려웠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입장의 폭을 좁혔다는 결과는 반길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점은 몇몇

단체에서 보이고 있는 동창회비 납부거부와 환불투쟁이라는 입장의 고수이다. 애초 경주캠의 동창회비 거부운동

의 취지는 총동창회측과 학생들의 납부협의 과정에서 경주캠이 배제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납부강요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납부거부·환불투쟁'이 이뤄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2년여를 끈 합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는 중운위 차원의 협의가 이뤄지기 전부터 학과별로 납부거부의 입장을 전달하여 지금까지도 졸업을 앞둔 4학년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다. 졸업생들이 낸 동창회비가 후배들에게 '동우장학금'으로 지급되고, 학교발전과 위상의 제고에 쓰여진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96년과 97년도의 합의 사항을 토대로 실질적인 혜택이 일반 학생들과 모든 동문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안을 모색할 단계이다. 개강을 맞이하여 학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과통폐합 문제를 비롯해서 이 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산적해 있음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의 소모전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전대기련 방북취재 끝내 불허

순수민간차원 교류 허용돼야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고조되고 있는 통일 열기에 부응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김세규·경기대 학보사 편집장 이하 전대기련)이 추진했던 방북취재사업 계획이 정부의 불허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월 전국대학신문대표자회의를 통해 30여명의 기자들로 공동기자단을 구성, 당초 8월 5일부터 16일까지 방북취재를 추진하기로 의결·최종 확정된 전대기련은 지난 4월과 6월, 7월 3차례에 걸친 공동기자단 합숙과 지난 5월7일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격적인 추진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5월 7일과 6월 26일의 방북취재를 위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 접수가 각각 지도교수 추천서 및 총장확인서, 사업계획서, 단체 설명서 등이 빠졌다는 것과 북한주민 접촉경위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7월 16일 두 번의 난항을 거쳐 접수된 전대기련의 방북취재 신청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8월 3일 방북취재단 실무대표인 외대학부 박운정 대학부장에게 답변서를 보내 "귀하 등의 대북추진교류계획은 최근의 북한 접수정 및 무장간첩침

투사건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와 8·15 통일대축전을 계기로 북한측이 통일전선전략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한주민 접촉을 불허하니 양자하지기 바랍니다"라고 공식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외대학부 박운정 대학부장은 세 차례의 접수과정에서 통일부 직원들이 방북취재 실무대표들에게 "대학생은 공부나 해라", "정세도 이런데 무슨 방북취재냐, 뭐하러 이런 거 할려고 하느냐", "왜 하필이면 여자 3명이나, 무슨 음모라도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비상식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대기련 한 실무대표는 정부불허 방침에 대해 "과연 자신들이 말하는 국민의 정부가 그들만의 정부인지 우리모두의 정부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통일부 직원들이 정말로 통일 지향적인지 모르겠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남북합의서 이행 등을 천명하고 정부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각 대학 학생회 및 대학생들이 북한 대학생과의 교류와 협력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협력하고 승인해 줄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통일의식을 고



취시켰지만 이번 전대기련 방북취재 불허 방침은 김대중정부의 통일지향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정부의 민간통일정책이 아직 선별적인 성격이 강하고 순수한 민간교류 차원의 취재를 단지, 북한잡수정 사건과 북한측의 통일전선전략에 이용될 것이라는 아전인수적인 판단하에 내린 정부의 결정에 대응하여 전대기련은 계속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방북취재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다음달 25일이면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게 되고, 60세 이상의 실형민들은

정부의 허가없이도 북한주민접촉신고서만 제출하면 북한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시점에서 전대기련 방북취재가 불허된 것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재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 동안 접할 기회가 없었던 북한의 대학생 및 주민들의 생활을 취재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학신문기자만의 순수한 열의와 열정으로 준비하고 있는 방북취재사업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것이다.

유철주 기자

동약로



수배해제

“시아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하며 가슴앓이를 하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시집살이 안시키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된 며느리는 과거의 시절을 잊은 채, 한 술 더 떠서 그 며느리에게 더 억압하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전국연합 노수희 공동의장의 연설은 조계사 경내에 찻잔처럼 울려 퍼졌다.

지난 22일, 안국동에 위치한 조계사에서는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전원 석방, 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가 있었다.

이날도 예외없이(?) 전경들은 조계사 입구 곳곳에서 무장을 한 채 서 있었고, 뜨거운 날씨에도 대웅전 앞에 빼곡히 앉은 시민과 학생들은 96년도 본교 총학생회장이자 4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이었던 유병문(불교 92)군이 개회선언을 하자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전국연합, 민가협, 범민련 등에서 오신 어르신들은 “양심수가 1백여명 석방되었음에도 계속 양심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 분노를 느끼고, 준법서약서 제도는 양심수 석방의 기준이 아니라 전·노씨나 한보비리 사건 당사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열변을 토했다.

한 정치수배 학생의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버릴 수는 없지만, 나라를 배신하고 민족을 버리는 자식은 버릴 수 있다”라고 단호히 말하며, 양심수 석방과 수배자 해제를 위해 1천800명을 오늘부터 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수배생활을 하는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이 오죽하리라는 자식의 신념이 옳기에 묵묵히 동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양심수 군문제 해결”에 관한 서명을 부탁하는 학생에게 “아! 그래요, 서명해야지요”라는 이주머니, 불교대학원에 입학하러 오다가 우연히 결의대회를 보고 “학생들하면 화염병만 던지는 줄 알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몰랐습니다”라는 한 아저씨의 모습에서 변혁의 미동을 느낄 수 있는 대회였다.

박노해씨의 ‘나 하나의 혁명’이라는 시중에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리와 희망의 모든 것이며 혁명의 시작과 끝’이라는 구절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이 모여 하나의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박영실 기자

8.15 양심수 사면과 준법서약제도

준법서약은 또다른 사상 전향

“양심의 자유 침해 안될 말” ... 조건없이 양심수 석방해야

정부는 8·15 정권수립 50돌을 맞아 수감자 2천1백37명을 포함한 모두 7천7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그리고 가석방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난 3·13 사면조치 때 55만이라는 ‘건국 이래 최대사면’에서 양심수 석방은 겨우 74명에만 그쳤듯이 이번 8·15사면에서도 양심수 94명(형집행정지 25명, 양심수 69명)만이 조건을 붙여 석방되었고 9명이 감형되었을 뿐이다. 미결수와 정치수배자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대지 않았다. 50년만의 정권교체와 8·15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인권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에 걸었던 양심수 없는 사죄의 고리는 틀거품이 되었고 그렇게 회한 기대만큼이나 실망과 배신감도 클 수밖에 없었다.

더욱 분노할 일은 ‘민주개혁은 양심수 석방으로부터’라는 개혁의 외침은 무시된 채 준법서약이라는 또 다른 사상전향제도를 도입하여 양심수에게는 인색하다못해 가혹하게 하면서도 한보비리와 경제파탄의 범죄자들, 12 12군사반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이른바 대통령 비자금 범죄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받지않고 모조리 사면복권까지 시키는 적대적 사면이라는 데 있다. 이같은 반역사적이고 반도덕적이며 정의에 어긋난 가치전도적 조처는 대통령사면권의 본래의 뜻을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민주발전과 인권개선을 약속했던

현정권의 신뢰성과 도덕성에도 고칠수 없는 흠집을 남겼다.

이번 8·15 사면에서 양심수 석방 기준은 오직 준법서약서 뿐이었다. 확신을 가진 양심수로서의 사회적 역사적 도덕적 평가 따위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복역연수, 나이, 건강상태 등 이제까지 행정법상 관행이었던 일반원칙과 인도주의적 측면도 완전히 배제되었다. 40년 넘게 갇혀 있었어도 70살이 지난 노인들이라도 준법서약을 쓰지않는 한 자연생명이 다할때까지 묶여 있어야 하고 형기의 절반 이상 또는 2/3이상 살았던 이들에게 있어왔던 가석방제도도 보이지 않았다. 예로써 만기날짜를 3개월, 2개월, 1개월, 8월달인 사람도 제외하는 등 양심수로서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았고 오직 ‘공안사법’으로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쓰는 것만으로 사면기준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준법서약제도는 어떤 내용을 가졌고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법무부가 말하는 준법서약서는 △처벌을 받게된 경위와 내용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명확한 의지표명 △징재의 생활계획 △ 3개월 의 고고실은 말 등으로 되어있다. 이 준법서약은 양심수(법무당국은 공안사범과 공안관련 사범이라고 함)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면의 필수조건이며, 준법서약을 썼다해서 모두가 사면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로부터 준법서

약의 진실성 여부를 심사받게 되어 있어 사면의 충분조건도 아니게 되어 있다. 또한 법무당국은 준법서약이 사상, 이념, 신념의 포기 아니고 지조의 궤설 요구나 국가에 대한 충성서약도 아닌 국민이라면 당연히 부담하는 법질서 준수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자.

첫째, 사상 전향제도가 특정 사상이나 신념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준법서약은 인간내면에 형성된 사상이나 신념, 윤리적 가치관등 내면의 양심을 강제로 표현하게 한다는데서 양심의 자유침해이다. 누구나 내면의 양심을 간직할 침묵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쓰면서 앞으로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거꾸로 해석하면 서약자의 양심으로서의 철회되어야 할 법을 잘지키겠다고 서약함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서약을 강제당하는 것이며 (자신의 양심으로서) 철회되어 쓰지않고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지만 준법서약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비록 약법이지만 실정법이기에도 처벌받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그 약법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서의 양심과 도덕을 짓밟는 일이며 인간의 또한 속성인 진



지난 15일 원주교도소 앞에서 학생들이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장면(왼쪽)과 민가협의 주요 집회 중 한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오른쪽).

보, 창조 그리고 비판활동을 포기케하는 반역사적인 조처이다.

넷째, 준법서약은 양심수 사면의 필수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라는데 또한 문제가 있다. 양심수는 반드시 준법서약을 써야 사면(석방) 될 수 있지만 (지난 어떤 정권에서도 이러한 강제는 없었다)서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그 진실성여부를 검사에게서 심사를 받아야하는(실제로 이번 8.15사면에서 불실하게 썼다해서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양심수 사면에서 이중삼중의 그물망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 서약제도 아래에서는 양심수 개념은 희석화될 수밖에 없고 어떤 사건의 성격, 형기, 주 종범 관계에 따른 사면조건도 고려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다섯째, 준법서약이 자유의지(양심)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고 서약(가치판단)을 둘러싼 사건의 사립들 사이에 화합과 단결,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

여섯째,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함은 상식이다. 굳이 준법서약서를 써야할 이유도, 또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준법서약을 쓰게하여 법외의

평등이란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

정부는 준법서약을 받으려는 이유로 재범위험성을 말하고 있지만 서약을 하고 않는 것으로 법을 지키고 여기라라는 추정은 잘못된 판단이다. 준법의 실효성은 강제로 서약을 받는데 있지않고 범죄정의 정당성, 제정절차의 합법성, 시행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또한 서약을 받아야 한다면 총칼로 정권을 탈취하고 양민을 학살한 자들, 경제파탄을 불러온 권력형, 부정부리 범죄자들이 대상자이지 어찌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려 독재와 싸우고 갈라진 조국을 하나되게 헌신했으며 사회진보와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애 쓴 사람에게 받아야 한단 말인가.

정부는 실효성도 없고 양심의 자유침해가 되고 있는 우용각 노인등 비정치향 장기수 20명을 비롯한 3백70여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민련, 한총련 등의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하고 정치적 이유로 수배당하고 있는 청년학생들과 노동자들을 조건없이 수배해제해야 할 것이다.

권오현 민주회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

대규모 정리하고 이제부터 “시작”

노사 이해관계 바탕의 실업자 대책 절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지난 7월초부터 3천여명의 조합원과 가족들이 ‘정리하고 반대’를 위한 파업을 강행했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정리하고가 기정사실화됨으로써 IMF와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무한경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하고 입법안이 통과된 이후 현대측은 지난 4월부터 희망퇴직원을 받아 8천여명을 퇴직시켰고, 다시 노동부에 “1천5백38명의 인원을 정리하고 하겠다”고 통보하고 전직원에게 정리하고 실시방침을 공표했다. 이에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리하고 반대 방침을 세우며 파업에 돌입해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현대자동차 사태가 장기간의 파업으로 치달을 것을 예상한 정부는 7월15일경 공권력 투입을 공언하고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강제해산 시키려 했다. 지난 7월 17일 공권력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조성될 당시 울산시 북구 양정동에 위치한 현대 공장의 전 출입문은 전경들의 노동자들과의 충돌에 대비해 경계가 더욱 강화되었고, 문 앞에서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채 1백 20개중대의 전경

과 수백의 노동자 사수대가 대치해 있었던 상황이었다. 당시 공장정문 유목에서는 정리하고를 반대한다며 애를 데리고 전경들에게 몸부림치던 한 여인이 몽둥이에 머리를 맞고 앵블린스에 실려가는 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자 정부측은 강제해산을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기 전 국민회의 노무현 의원과 이기호 노동부 장관을 파업현장에 급파하고, 그 결과 정부측 중재하에 지난 22일경 2백70여명의 원원을 정리하고 합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틀후인 지난 24일 노조와 회사측은 1천 5백38명의 인원에서 1천2백61명에 대해 1년 6개월동안 무급휴직하고 1백43명의 식당직원과 1백34명의 일반직원을 정리하고 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안에 합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합의를 두고 김광식 노조위원장장은 “명분보다 실리를 앞세워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2백77명의 정리하고 합의안에 동의했다”고 합의의 당위성을 밝혔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조합원 사이에는 노사합의 결과를 두고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노조 조합원들은 “정리해

고의 물고기를 떠다”, “이제부터가 진짜 정리하고의 시작이다”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 회사측은 “정부가 노조입장에 귀를 너무 기울여 유감이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측은 “노·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대의신인도와 비인도적인 불사사를 막았다”고 입장을 표명해 노·사·정을 비롯한 일선 노조조합원간의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정리하고가 노사 합의를 통해 이뤄진만큼, 회사측의 재정이 어려워 정리하고를 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강경파 노조원들을 마음대로 정리하고 시킬 수 있는 열쇠를 회사측에게 쥐어준 계기가 됐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조는 현재의 기업별 노조형태에서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모색중이지만, 우선 단위노조자체의 조직적 재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정부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기정사실화 되고있는 지금, 노사의 이해관계속에서 파생되고 있는 실업자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박양우 기자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손후근씨를 만나

“더이상 정리하고자가 없기를 바란다”

울산 현대자동차 정리하고자인 전 연구개발본부 손후근 대리를 지난 8월 17일 파업현장에서 만났다.



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어떻게 파업현장에 동참하게 되었는가.  
=지난 7월17일 8천여명의 희망퇴직후 회사측에서 노동부에 보고해 결정내린 1천5백38명의 정리하고 명단 맨 윗줄에 내 이름 석자가 적혀있어서 정리하고 철폐를 위한 파업현장에 있게 됐다.

-노조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노조는 생산라인만 전적으로 위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해는 간다. 현재 현장라인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나사조이는 일등 단순 노동자이기때문에 막상 실직되면 취직할 길도없어 딱 끊어죽을 판이다.

-정리하고에 대한 생각은.  
=누굴 정리하는 건지 모르겠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정리하고하면 되겠는가? 정리하고의 기준 또한 애매하다. 인사과파란 게 있고, 회사가 관료주의와 기생주의에 젖어 있어서 과거의 행동과 업무를 보고 정리하고를 시키고 있다. 회사에 잘보이는 사람만이 정리하고 태풍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현

-노사의 합의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노조에서는 직원들이 수백여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순환유직제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고를 시키지 않는 제안을 했지만, 회사측은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보기엔 결국 정리하고로 결정났으니 노조와의 자존심대결에서 회사가 이겼다고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타협을 했으니 정리하고의 물고기를 떠다는 회사의 명분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사와 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노동자의 일반적이고 고등전답이 아닌 노·사와 정부의 동등한 고등분담 방안이 함께 고민됐으면 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정리하고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것이 내 마지막 바람이다.

박양우 기자

정치수배 해제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농성단 협상진행 ... 정부의 호의적 조치 기대

김영삼 정권시절의 학생운동 정치수배자 7명이 지난 8월 9일부터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단장=오창규·93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겸 남총련 의장)을 구성,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현재 농성중인 사람은 단장인 오창규씨를 비롯해 유병문(본교 96년 총학생회장·불교4 휴학), 김현권(서울대 농화학4 휴학), 엄동렬(건국대 농화학4 휴학), 김성수(전남대 가정관리 졸), 이영수(서울대 농촌사회교육4 휴학), 김재돈(서울대 농기계4 휴학)군 등으로 이들은 모두 김영삼 정권시절 학생운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짧게는 2-3년, 길게는 6년 이상의 수배 생활을 해온 정치수배자들은 지난 4월 전 남대출신 중심으로 모임을 처음으로 결성,

5월에는 광주전남 지역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다. 이 모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조계사 농성단을 구성한 이들은 앞으로 △김영삼 정권시절의 학생운동 관련자들의 수배해제 △양심수들의 군대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 마련 △강위원, 정명기, 정태홍씨 등 전일 한총련 의장을 비롯한 학생운동관련 양심수들의 조건없는 석방 △5기 한총련의 이적규정 재검토와 6기 한총련 대의원 검거 중지 △국가보안법의 철폐 또는 개정 등 정치수배 해제뿐만 아니라 양심수전원석방과 인권신장에 관한 문제해결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조계사 농성단은 지난 10일 8·15사면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필두로 그동안 언론매체 홍보와 수배자명단 파악,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결의

대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오창규 농성단장은 “현정권 들어 두 번에 걸쳐 진행된 특별사면에서 정치수배해제와 양심수전원석방을 기대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이렇게 농성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이후에 정치수배자들에게 대해서 ‘불구속 수사와 기소유예’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성단은 전대협 동우회 회원, 진관 스님,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 홍근수 향린교회 목사 등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국민회의, 검찰 등과 계속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조계사 농성단을 찾았던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김대중 정부는 하루빨리 양심수를 석방하고 전 정권에서 자행된 정치수배를 반드시 해제해야 할 것”이라며 농성단을 격



지난 22일 조계사에서 열린 '정치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인권신장을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 중 수배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유철주 기자

려했다. 지난 28일 농성장에서 만난 유병문군은 “지난 시절의 어려운 상황에서 양심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니냐”고 농성의 당위성을 밝히며 “국민의 정부에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청년이 되고 싶다”고 자신의 소견을 말했다.

유철주 기자

언론개혁 시민연대 출범

언론을 국민의 힘으로 개혁하기 위한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김중배 이하 언개혁)가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언개혁은 △미디어교육 △대안매체 활성화 운동 △소유구조 개선 △권언유착방축 청산 입법운동 등을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삼았다.

언개혁의 출범은 기존의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언론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언개혁은 언론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연대활동을 초월한 보다 발전적인 모델을 지향할 예정이다.

사희부

98 통일운동이 주는 교훈

# 민간통일운동 따로 노는 행사 “대동단결만이 살 길이다”

또 다시 아픈 기억을 역사에 남긴 98 통일운동

50년만에 여야간 정권교체의 첫해, 그 첫해의 8월은 여느해와 별 다름이 없었다. 다만 물난리가 심하게 닳다는 것과 작년과는 달리 세개의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는 것을 빼놓고, 누구는 입진각에서, 누구는 서울대에서, 누구는 장충단 공원에서 불과 몇 년전만 해도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남북의 진정한 하나됨을 노래했던 민족민주운동진영이 사분 오열되어 각자의 입맛에 맞는 통일행사를 하는 모습이 진정 4천만 국민과 7천만 동포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98년 8월 15일 낮 1시 독립문 공원에서 집결했다. 공원에는 군데군데 학생들과 시민들이 흩어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전경과 사복 형사들이 엄청 많이 깔렸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과격할 것도 없는 행사 같더니만... 중략... 아쉬운 건 늙은 우덜 보다 어린 대학생들이었죠. 학생들은 아쉬움을 못사며, 결국 공연도 끝난 무대 앞에서 지들끼리 출판을 벌이더군요..., 불쌍하여라 그렇게 누가 정부에서 하는 통일행사에 참석하겠습니까? 도대체 뭘 기대하는갑? 아무튼 6시에 지겨운 행사는 끝내고 우덜은 다시 입진각으로 울며 마냥 각각 관공버스를 나눠타고 엄청 후회하며 서울로 돌아왔죠. 서울 와서도 어리버리 제대로 뒷풀이 조직도 못한채 헤어지고 난 너무 화가 났죠.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통일이나? 한편 저녁 8시경 장충단 공원에서 통일행사를 끝낸 우리들은 아주 흡족해하며, 회심의 뒷풀이를 근처에서 하고 있다는 전갈을 보내왔구요. 이렇게 썰렁한 통일행사 한번 고민해봐야겠지요? 도대체 이거 박수부대도 아니고 아무내용도 없는 통일부의 틀러리 처럼... 이따위 형식적인 행사 참석을 위해 황금같은 연휴의 하루를 빼앗겼다는 것이 넌 짜증난다...” 입진각에서 하는 행사를 참석하고 난 후 서울의 한 시민단체의 회원이 컴퓨터 통신에 올린 참가소감 글이다.

한편, 그 시간에는 한총련 학생 3천여명과 범민련 간부어르신들은 오도가도 못하고 서울대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었다. 행사장에는 헬기가 날아다니며 최루액을 뿌리며 학생들의 집결과 행사진행을 저지하고 있었다. 서울대 참석한 학생들은 이리저리 몸을 피하며 통일행사를 치뤘었다. 같은 시간대에 서울의 장충단 공원,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은 남북합의서 실현과 평화군축을 실현을 위한 통일행사를 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장충단 공원에서 경찰들의 비호(?)를 받으며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서울대가 ‘제2의 연세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근심을 안고, 독일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고국의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동포분들과 외국인들은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이 공동주최하는 행사장에서 비를 맞으며 자리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남북 정당 및 사회단체 연석회의 50돌을 맞는 해인 98년 8월 15일은 지나고 있었다.

## 새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최근

올 6월 10일 북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대축전’을 제안, 이에 강인덕 통일부 장관이 수용의사를 밝힌후 본격적인 통일행사에 착수해 들어갔다. 남측의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세력들이 자발적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전에 통일부가 나서서 승인하는 발언을 먼저 하고 범민련과 한총련 배제 방침을 내려버렸다. 그것이 첫단추를 잘못 키우게 된 것이다. 북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인것에 대한 민간통일운동진영의 지지와 환영은 정부측의 주도로 결국 또다른 실망으로 돌아서버리게 되었다. 정부는 민간의 대북접촉승인을 해주고 다리를 연결해주는 것으로 역할을 마감했어야 했다. 이러한 과정은 민화협 결성추진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정부주도의 통일행사의지가 남측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단합을 깨뜨리고 만 것이다.

## 사심 버리고 민족의 대의에 우선해야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해가 개입되면 될 수록 운동은 그 순수성을 잃게 마련이다. 물론 운동이 ‘모든 것에 순수해야만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이나 집단의 일정한 희생을 따르더라도 그 희생을 감내하고 전체를 위한 대의에 언제나 충실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자민족의 이해와 요구와는 상관없이 타국 또는 타민족의 정치,사회적 이해에 의해 여러갈래로 분단되거나 강제로 통합된 민족국가들의 경우 20세기말 다시 자기민족의 본연의 속성을 되찾아 가고 있다. 소련방이 독립국가연합으로 동서독이 독일로,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남, 북예멘이 예멘으로의 재통일이 그것이다. 우리는 5천년 단일 문화권을 형성하며 맥을 이어온 한민족이다. 그러나 서구열강들과 주변국들의 무분별한 정치적 간섭과 군사적 위협으로 40년 가량 주권을 빼앗겨오다가 되찾으려는 순간 또다시 최고 통치자 대통령조차 군사주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통일운동은 반반만 한민족의 역사를 복원하고 우리민족의 요구가 아닌 외세에 의한 50년 분단의 치욕을 하나둘씩 씻어내는 모든 한민족의 살повий의 과정인 셈이다.

그러한 성스러운 민족 대단합의 길에 개인 또는 특정집단의 정치적 이해를 우선시하면서 민족의 재통합에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은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재통합을 위한 새로운 분열은 그 자체로 진화이자 진전이다. 98년 통일운동은 나뉘대로 나뉘어져 진행되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대동단결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커나가고 있음을 깨우치게 한것은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다.

정 연 욱  
민주주의민주통일전국연합 정책부장

## 통일선봉대 대원을 만나

# “민중이 함께하는 ‘통일’을 위해 살겠다”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에서 진행되었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제9차범민족대회’에 제11기 범청학련 통일선봉대원으로 참여했던 윤봉균(국어국문학부1·가평)군을 만나 참가소감을 들어 보았다.

-통일선봉대로 범민족대회에 참가하게된 계기는.

=우선은 고등학교 때의 학생회 활동 경험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평소애 학생들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대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통일선봉대 활동은 어땠는가.

=본 행사가 열리기 전 주로 광주와 부산에서 활동을 했다. 자하철과 거리에서의 대시민 선전전, 부산에 있는 주한미군부대 앞에서 집회 등이 있었고 서울로 올라와 범민족대회 본대열과 함께 대회를 치러냈다.

-대회를 치르면서 느낀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새내기로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고민된 것은 ‘연방제통일’



서울대정문앞에서 연와시위를 하는 통일선봉대원들

이라는 것이다. 고등학교때까지 배웠던 연방제는 북한에는 유리하고 남한에는 불리한 제도로 인식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배우고 느낀 것은 정말로 우리 민족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통일방안은 연방제라고 생각되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참가 소감을 말한다면.

=우선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그러나 그만큼 느꼈던 것도 많았다. 특히, 서울대 정문에서 물대포를 맞으면서 도 자리를 지키던 학생들을 볼 때는 정말 뜨거운 동지애를 느꼈다. 또한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불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현재 겪고 있는 민중들의 고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정말로 모든 민중이 함께하는 ‘통일’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했다.

유희주 기자

## 9차 범민족대회와 8차 통일대축전

# 범대회 경찰 원천봉쇄 불구 서울대에서 성사

한총련·범민련 이적단체 규정 ... 남북공동개최 무산



학생들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 서울대 노천극장에 모여 울동하는 모습(왼쪽)과 15일 판문점 진출을 위한 행진도중 출동한 헬기가 상공에서 형광액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오른쪽).

정부수립 50주년을 IMF를 맞은 국가 최대의 위기상황에서 제2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제2의 건국이라는 의미를 자세히 보면 결국 분단현실의 반성과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지난 6월10일 북측에서는 민족의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대축전 공동개최를 제안했고 남한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원과 의지가 날로 높아졌다. 하지만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장=강희남 목사 이하 범민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손준혁·영남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통일대축전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축전이 무산됐다.

실상가상으로 검찰은 범민련과 한총련이 추진하는 9차 범민족대회와 8차 통일대축전을 친북이적행사로 규정, 행사 자체를 원천봉쇄키로 하였고 경찰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건국대 등의 대회 개최 예정대학에 1백60개 중대 2만여명의 전경을 배치해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하지만 범민련과 한총련은 12일 오후 6시 사당역에 모여 관악산 등산로를 통해 4시간여의 산행으로 서울대로 진입하며 13일부터 15일까지 범민족 대회를 진행했다.

13일 오후8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 및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9차 범민족대회 개막식을 필두로 통일대축전 및 9차 범민족대회의 뜻을 올렸다. 개막식에서 범민련 강희남 의장은 “8·15 행사가 해마다 민족의 목을 조이고 있는 외세의 정권때문에 7천만 겨레가 한을 품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너무 감격스러운 영광과 기쁨의 자리로서 이 대회에 참석한 범민련 산하 애국단체들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축하한다”는 개회사를 남겼다. 이어 범청학련 통일노래 한마당은 조국통일에 대한 열정과 열원을 각대해 노래패들의 참가

곡에 한껏 담아냈다. 행사 이틀째인 14일은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8범민족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민족자주의 원칙 고수, 애국애족과 조국통일의 기치로 민족의 대단결 반통일세력과 반북대결 책동저지, 범민련 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남측본부의 합법화와 대중화를 실현하자는 내용의 공동결정서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한총련 6기 손준혁의장은 “우리 모두가 통일의 3대원칙과 현실적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에 매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7일 남·북·해의 연결과 4기 공동사무국 건설의 임무를 띄고 북만으로 건너간 김대원(건국대 축산경영학과4)군과 황선(덕성여대 국문과4)양등이 북측에서 실시되는 범청학련 총회에 참석하여 남측본부를 대표해 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한 이 무명은 7월31일과 8월1일 각각 서울을 출발, 유럽의 여러 도시와 중국을 경유해 8월7일 평양에 도착했다.

14일 오후 8시 쪽우속에서 진행된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밤(통일대축전, 9차 범민족대회 전야제)은 참가자 모두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3천여명의 학생들은 비바람속에서도 천리마, 희망새 등의 노래공연을 함께 울음을 하며 통일에 대한 열정으로 여름밤을 수놓았다.

15일 오전 12시에는 98범민족회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연석회의 보고대회 및 판문점 출정식을 마친 후 교문밖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을 빚었다. 범민련과

한총련 대오가 후문으로 진출하려던 가운데 경찰은 헬기 6대를 동원해 선무방송을 하며 공중을 선회하다 형광최루액을 뿌렸다.

후문 진출이 막히자 대오는 정문으로 향했고 정문에서 또한 경찰은 연좌시위를 하던 통일선봉대에게 물대포를 난사했다. 출정식과 교문 진출과정에서 범민련 강희남 의장을 비롯한 범민련 관계자 6명이 연행됐다.

같은 날 오전에 녹반역에서 판문점으로 향하던 대학생 9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오후 3시에는 입진각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유인물을 배포하던 대학생 9명도 경찰에 전원 연행되었다.

이번 통일대축전과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총 5백여명이 연행되었으며 검찰은 학생 20명과 범민련 강희남 의장 등 범민련 관계자 9명을 구속 수사했다.

이번 통일대축전과 범민족대회는 경찰의 진압이 강경했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수해일순도 모자라는 실정에 1만여명의 전경을 학교주변과 지하철에 배치하고 무리하게 헬기를 띄운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서울대를 원천봉쇄하면서 침탈위험을 가하고 불심검문을 펼치며 수많은 학생을 연행한 것은 ‘국민의 정부’라는 말을 무색케 했다.

한총련 또한 통일에 대한 열의와 열정만으로 유연성을 잃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통일운동을 펼치려한 것은 잘못됐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합리적인 관점으로 온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통일운동이 진정으로 학생운동의 믿음을 주는 것일 것이다.

어쨌든, 서울대에서 기습적으로 치러진 통일대축전과 9차 범민족대회는 통일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했고 통일운동이 진정으로 나아가 방향을 생각해 한 자리였다.

오인택 기자

## 취재박수

### 통일과 사오정

○...범대회에 나타난 사오정?  
행사의 마지막 날인 8월 16일 오후 본교와 서울대 등이 속한 서남총련과 고려대, 덕성여대등이 속한 북부총련의 한판 축구경기가 열렸는데.

이날 남(?)과 북(?)의 자존심을 건 대결은 손에 땀을 쥐는 박진감 넘치는 승부였다고.

이 경기는 결국 남쪽의 승리로 끝났고, 맹활약했던 남쪽의 한 선수에게 족구를 잘하게 된 비결을 묻자, 흥분된 표정으로 “예, 그렇습니다. 통일은 꼭 될 것입니다”

### 깜찍이(?) 헬기

○...국민 정부의 헬기는 노란 오뎀을 써야하나요!!!

8월 15일 오전 범대회 출정식을 마친 시민과 학생들은 판문점으로 가기 위해 교문으로 출발.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이 출동한 헬기 6대는 노란색 형광최루액을 뿌리며 평화적인 행진을 가로막았는데.

이에 질세라 정문에서 기다리던 살수차 역시 물대포를 마구 뿌려 대머 맞장구를 치는 상황을 연출.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의 “밤금 뭐가 지나갔나?”라는 질문에 마구 뿌려대던 경찰 한마디 “글쎄,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 과식투쟁

○...한 번을 두번, 세 번처럼!!!  
범대회 기간 중 유일하게 학생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은 다름아닌 식사시간.

이 편안한 시간은 하루중 한끼 밥을 유일하게 먹을 수있는 식사 시간인 관계로 학생들은 한번에 세끼를 해결하려 했는데.

이 과식투쟁(?)은 다른 어떤활동 못지않게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에 평소 소량의 식사를 해왔다는 한 학생 한마디 “정경도 부질 없어 형사도 부질없어 청산은 나를 보고 과식만 하리하네-!!!”

### 통일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갈길을 간다.

14일 오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 밤에는 비바람이 몰아쳤음에도 불구하고 한총련 학생들은 노천극장에서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데. 특히, 천리마, 희망새 등 노래와 공연은 당연 안권되었고, 아침이 밝아올때까지 열정적인 분위기가였다고.

울동을 따라하던 한 새내기 알 “우리가 비를 맞으면 맞을수록 통일키(?)가 큰데요!

## 민화협 입진각에서 통일대축전 개최

8·15 통일대축전의 남북 공동개최가 무산된 채 남측에서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준)(상임준비위원장=한광옥 이하 민화협)와 통일대축전 남측추진본부(이하 남측추진본부) 주최로 지난 13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의 행사를 진행했다.

‘평화로 한마음, 통일로 한결음’이란 기치를 내건 이번 행사의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해방 53주년 기념식 및 실형민과 함께하는 통일 기원제’가 6백여명 학생과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입진각에서 열렸다. 이번 통일기원제의 기념사에서 한국기독교서회 김삼근 이사장은 “비록 판문점 통

## 민주노총·전국연합 함께한 통일대회 진행

8·15 광복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그러한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장충단 공원에서는 98노동자통일한마당(이하 통일한마당)과 98자주·통일 결의대회(이하 자주·통일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이갑용 이하 민주노총)의 주최로 열린 통일한마당 본행사는 통일에 대한 열원을 담은 노래와 율동, 노래극 등 사전행사가 진행된 이후 3시 30분경부터 시작됐다.

대회사에서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

장은 “노동자가 통일운동의 주체로 나서자는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노동자를 비롯한 농민, 도시민등등 기층민중들이 단결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적 평화통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흥군수 향린교회 목사와 장기수 입법규제, 양연수 전국빈민연합 준비위원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격려사에서 이들은 “진정한 통일 세력인 민중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날 행사는 중간중간에 참가자들의 문

예극등 공연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무료함을 덜어주었다. 특히, 어린이 통일대의 통일에 대한 열원을 담은 깜찍한 공연은 참가자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숙연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통일한마당 행사가 끝난 뒤 5시 30분경부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이창복 이하 전국연합)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남북합의서 이행과 평화군축 실현을 위한 98 자주·통일 결의대회가 시작됐다.

이 행사의 대회사에서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남북합의서를 이행하고 평화군축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민간운동력을 통일운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은

“통일노동운동이 더 이상 단합되지 못한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또한 “통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재벌과 수구세력, 잘못된 정치권의 타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회를 마쳤다.

한편, 행사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전 투경찰 1천여명이 동원돼 본교 후문, 중문을 비롯한 모든 출구를 봉쇄했으며 장충단공원에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삼엄한 경비 태세를 갖추었다. 경찰측의 일방적인 원천봉쇄와 불심검문에 대해 주최측인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은 2시30분경부터 20여분간 공원입구로 나와 철수를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경찰과 노동자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남대철 기자





김재천



이유기



김상일



이정일



원병관



백승흠



전영화



조남풍



차재훈



이상윤



이주원



김국남



배강규



김희철



송민구



양은경



김상직



홍미라



박철원



신현철



홍정웅



함소희



김미경



신동훈



김성순

관계

▲최은영=시가아오아의 동화세계-동화적인 직재에 세 작품을 중심으로

▲김은진='삼국유사' 탐상편에 관한 연구

▲문기원=초기 모택동의 활동과 사상-신사화건설운동의 중심으로서

▲이기명=조선전기 상과제 연구

▲이주환=조선공산당의 노선대립연구-해방직후를 중심으로

▲박소영=문목의 석가래행적속 연구

▲장현희=통일신라능묘 십이지상의 연구

▲정명아=표암 강세황 서예 연구

▲정유희=이규보의 실천다도

▲김미경=직업교육 참여 기혼여성의 직업 및 직업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김미옥=여가활동유형과 학업성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서울·경기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양홍=환경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론에 관한 연구

▲이준호=미국 회사법상 경영기구의 구조에 관한 연구-경영기구의 권한분배를 중심으로

▲김형주=전향제도와 양심의 자유에 관한 고찰

▲이재호=중국공무원채용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조기홍=중무행정의 조직발전방향에 관한 조계종단의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염경현=한국의 컴퓨터범죄실태와 형사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최순화=TV 범죄뉴스 보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종우=한국의 노인범죄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조현숙=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와 차별에 대한 실증분석

▲문병진=각국 기업연금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신우진=아파트 시장의 효율성 분석-서초구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김재이=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사관계-각국의 노동정책의 비교·분석 및 정책과제의 제시

▲박정화=소형카세트 플레이어의 소비자 불평행동에 관한 연구-국내·외제품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조지은=한국기업의 국제 M&A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김진봉=인터넷 상거래의 도입요인 및 경영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왕태권=감사인의 독립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이홍례 = Oxidation Reaction of

Tetrahydrothiophene by Ruthenium Oxidation Complex

▲조상원=Synthetic Study of Monobactam derived from 5(4H)-oxazolones utilizing MM2 calculations

▲임 신 빈 =Synthesis, Structural Characterization and Theoretical Study of the Novel Ruthenium Azide complex

▲이준우=화합물 분석을 위한 전기화학 적 검출방법의 개발

▲김대환=김스표집을 이용한 혼합모형의 분산성분에 관한 베이저안 추정

▲진영=네이만 배분법과 수정절사법의 효율성 비교

▲이문환=무응답 상황에서 비용함수를 고려한 최적포함확률에 관한 연구

▲김상덕=한국산 갈기미과의 분류학적 재검리

▲한 민 정 =보리의 재분화 및 Agrobacterium을 매개한 형질전환을 위한 GUS 분석

▲임은희=Effects of monovalent and divalent cations on the self-splicing of T4 phage thymidylate synthase intron RNA

▲이경선=소비가가 인지의 기업 전자 소비자 상담서비스 평가요인에 관한 연구

▲정시중=단독수수의 품종, 수확시기 및 저장기간이 발아에 미치는 영향

▲김미연=CDMA 이동통신망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인증 알고리즘 개선

▲김동일=1Gbit 급 메모리 소자 제작을 위한 Cu damascene 공정에 대한 연구

▲이성우=은니 다중서명기법을 이용한 전자현금시스템 설계

▲최순화=TV 범죄뉴스 보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경현=생명주기서비스와 이동에이전트를 이용한 CDRBA기반 응용 프로그램의 가용성 향상 방법

▲진종욱=네트워크 통신량을 줄인 이단계 요청 해결 프로토콜

▲주신탁=계산 집중적 분산 시스템의 프로세스 그룹에 기반한 동적 변경

▲윤성민=이미지 검색의 적중률 향상을 위한 분석기법

▲조종필=plugVRML의 설계와 구현

▲정동열=웹기반 미들웨어 서버의 성능 평가를 위한 톨킷 구현

▲김은희=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객체 지향 모델링의 확장

▲이형운=전자 Swarm법에 의한 SiH4 플라즈마의 전자기속도 및 특성에너지 해석

▲이두성=온도변화에 따른 합성형 사교의 거동

▲김중서=합성강관형교의 활중 중분배에 관한 연구

▲고철우=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연속 합성강관형교의 최적화 설계

▲김환식=터널 라이닝의 역학적 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류 권=교단과 알발등안 흙의 수평투수계수 변화에 따른 연구

▲임병구=도시형 사찰건축의 현대화 경향에 관한 조사 연구

▲이진욱=환경친화적 콜탈에나멜 제조를 위한 공정개발 및 제품의 물성특성해석

▲박명철=중합조건에 따른 수계 에멀전 점착제의 점착성 연구

▲조준성=칼탈유분의 물성 예측식 개발과 회분식 증류공정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이명자=생분해성 고분자의 생분해 특성과 분해기구에 관한 연구

▲성훈경=Lactococcus lactis subsp. lactis의 bacterium생산균주를 starter로 사용한 김치의 적시기간 연장

▲강덕순=Streptomyces eurythermus St-1702로부터 얻은 -1, 3-ggucanase의 정제 및 특성

▲박지영=사관 건강보조식품용 유지가공식품군의 품질과 위해요소 분석에 관한 연구

▲문선미=호화전분과 생분해를 압출 성형한 압출물의 이화학적 성질

▲안현주= 당류첨가가 동부전분의 노화 및 물성에 미치는 영향

▲이승근=정수계획법을 위한 신경망 접근방법

▲김상직=순환제조시스템의 성능 평가 방법의 관한 연구

▲김영호=동양미학의 입장에서 바라본 영화-동양화론을 중심으로

▲정민아=영화의 물신주의 이론에 관한 연구-물신·영화스타 이미지 분석

▲홍관주=(역적어법과 그 지식)에 나타난 서사극 연기의 희극성 고찰-(베를리너양상)공연을 중심으로

▲유양근=이미지무라 쇼헤이의 일본인의 정체성 찾기

▲김형미=구조물형상과 인간내면관계에 대한 회화적 모색

▲채희수=북극권 훈련을 통한 허들의 기록영화에 관한 연구-남자중화생을 중심으로-

▲경일현=플라이어메트릭 트레이닝을 통한 단거리 가속질주에 관한 연구-100m 달리기를 중심으로-

▲윤영조=고등학교 축구선수들의 경기 중 운동상태에 관한 조사 연구

▲안형준=계지약침이 백사의 LPS유발 관절염증 면역조직화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Macrophage, NK-cell, ICAM을 중심으

로

▲송순기=보종익기탕 투여가 장거리 달리기선수의 에너지 및 전해질 대사에 미치는 영향

▲배건태=등산침법에 관한 연구

▲이무형=신장조직에서 백강압 압출물의 항산화 작용에 관한 연구

▲윤종영=전갈 뇌조직의 Na<sup>+</sup> K<sup>+</sup> ATPase 활동에 미치는 영향

▲전재홍=황금추출물 DNCB로 유도된 생쥐의 Allergy성 접촉피부염에 미치는 영향

▲채중구=갈화해정탕이 ethanol-유도된 막손상의 보호에 미치는 항산화효과

▲김광은=가미향사육근지방의 위장막 손상의 치료에 미치는 항산화효과

▲강정준=저질사 추출물 음경면역체의 nitric oxide synthase 활성 및 nitrite 함량에 미치는 영향

▲최재영=흰쥐의 중대뇌동맥 폐쇄후 당귀작약산 투여가 여성호르몬 및 뇌위축에 미치는 영향

▲장효정=Triton WR-1339주사로 유도된 생쥐의 고지혈증에 위급탕이 미치는 영향

▲김광진=추출물의 발기부전 개선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기열=제조가 마우스 Natural killer 세포활성에 미치는 영향

▲황정일=침구실천론에 관한 연구-서영태의 의학원유론을 중심으로

▲최원준=항심성 노선의 경락체계에 관한 연구-영구·본수편의 오유류 유주노선을 중심으로

▲선재광=삼합이론의 침구학적 운용에 관한 연구

▲노동일=삼백피 약침의 항염증 및 알레르기 활성에 관한 연구

▲강동휘=제조로부터 정제된 혈전용해효소의 효능에 관한 연구

▲홍윤표=계지복령환이 Cholesterol 식이 SOD유전자발현능에 미치는 영향

▲박현준=제조로부터 혈전용해효소 45,000dalton의 정제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홍문영=신수혈의 침자극과 황기약침이 실험용 생쥐의 면역활성물질인 IL-1의 유전자발현에 미치는 영향

▲김중수=신수혈의 침자극과 황기약침이 실험용 생쥐의 면역활성물질인 cytokine의 IL-6의 유전자발현에 미치는 영향

▲조문성=Bupivacaine을 사용한 척추 마취시 Epinephrine첨가가 미치는 영향

▲최은아=진행성 위선암증에서 Heat shock protein과 Sulphomucin 발현양상에 관한 연구

▲이승훈=대퇴골 경부 골절과 전자간 골절의 임상적 고찰

▲이재욱=Helicobacter pylori 감염에서 VacA 및 CagA와 위 상피세포 증식과의 관계

▲강민아=산전 태아 체중 평가에 도플러 초음파 이용

▲정광욱=미국산 및 만식아의 로타바이러스 원내 감염증에 대한 임상적 고찰

### 불교대학원

▲양영모=한국선종사에 미친 금강경오가해의 영향 연구

▲신호순=초기 선종사의 능가경과 금강경의 위상

▲심재동=반야심경에 나타난 가차자와 한문어법적 고찰

▲김홍배=밀교수행체계의 진언 위상 연구-대일경 금강경경을 중심으로-

▲이민식=고려후기 백연결사 역사적 연구-무신집경기를 중심으로-

▲조항숙=불교계 노인교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이동훈=청소년 비행의 예방에 관한 연구-교과 폭력에 대한 불교계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행정대학원

▲오을민=육군여군 장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관한 연구-여군사관의 임용체제 및 보직관리를 중심으로-

▲천효남=상표관리에 관한 연구-상품의 품질인 내지 수요자 기반 상표를 중심으로-

▲정옥현=신세대 병사 관리를 위한 리더십에 관한 연구-중대장, 대대장을 중심으로-

▲리상훈=기초회의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

▲박한석=교원연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황승순=교통안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철도운임을 중심으로-

▲박기봉=소대장과 대대장의 리더십 비교연구

▲김대환=지방정부의 언론홍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왕원팔=신세계 질서하에서의 한·미 안보협력관계 발전방향

▲김기환=군 재해·재난 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김효동=한·미 연합방위체제구축 발전방안 연구

▲김광철=미·일 신 방위체제협력지침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박형택=중국공군의 현대화 추진 과정에 관한 연구

▲이두현=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체제에 관한 연구

▲우오중=한국의 방위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연구-기술발전 토대구축 및 육성체제 정비안을 중심으로-

▲방명록=한국 방위산업의 효율화 방안 연구

▲설영길=한국 군사전략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최영관=한반도 군비통제 실현방안 연구

▲윤부영=한국의 군사지휘체제에 관한 연구-통합군제 적용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신덕규=신세대 병사의 갈등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이정준=국가비상대비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법령 체계를 중심으로-

▲박상덕=한·미 연합 군사지휘관에게 관한 연구-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중심으로-

▲이명철=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한국의 안보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북·미 협력을 중심으로-

▲진성석=한국예비군의 교육훈련 발전 방안 연구

▲양재만=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연구-남북한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김인선=군기강 쇄신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남궁승필=군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중대급 이하 징병사단을 중심으로-

▲한진태=청소년 약물남용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의 통제를 중심으로-

▲허남석=청소년비행의 실태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권혁민=한국재난관리의 운용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응급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최은석=국제테러리즘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수=직업공인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영관장교를 중심으로-

▲조성호=119 응급의료 서비스의 복지행정적 역할충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신동준=유료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유당마을을 중심으로-

▲신병철=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

▲전신식=직업학교 운용사례 연구-A사의 경우를 중심으로-

▲신광돈=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서비스(700-2060) 이용 만족도에 관한 연구-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서성래=영·유아 보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동대문지역의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서병진=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노인 학교 학생과 기타노인과의 비교

▲김미덕=지역사회 정신보건에 관한 주민의 인식도 연구-안양시 중심으로-

▲엄순애=어린이집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영근=교회 공부방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서울시 소재 빈민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김종만=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일산 신도시 주거 노인을 중심으로-

▲김승환=불교관련 영유아 보육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보육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김영태=노인의 생활 만족도 연구-아들 가정 거주 노인과 딸 가정 거주 노인의 비교

▲어정수=한국 경찰공무원의 재해실태에 관한 연구-1997년 공상경찰 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홍=한국역대정부의 통일정책 비교-197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양종오=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성화 방안-서울특별시 의회를 중심으로-

▲박종철=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전주 광역권을 중심으로- 이상 51명

### 경영대학원

▲최철규=개방화에 따른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개발방안-건설토목 분야를 중심으로-

▲염재열=통신판매 이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통신판매의 내부기능을 중심으로-

▲진용길=국내은행의 과잉금융상품 이용현황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홍중이=신세대 직원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새마을 금고 직원을 중심으로-

▲조한훈=병원 근무자의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사무직원을 중심으로-

▲황순효=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운영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특허심판제도와 특허심판원의 조직 운영을 중심으로-

▲김명식=신입사원 교육 훈련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기업의 신입사원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윤지은=학원업종사자의 퇴직금과 복지후생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과주·고양지역을 중심으로-

▲백두진=리더십유형이 부하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 분석-

▲김종길=라면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관한 연구-구매의사결정과정의 중심요인-

▲여정규=산업재 고용자와 구매자문의 관계적특성이 산업재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합성수지 포장재 산업을 중심으로-

▲이혜자=고객에 대한 SERVICE 제공자의 관계지향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금융기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상범=호텔고객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SERVICE QUALITY분석을 중심으로-

▲장인일=색조화장품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라이프스타일 분석을 중심으로-

▲김재근=학교 교육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고등학교생들의 학교 교육관경을 중심으로-

▲한종윤=자동차의 재무매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중소형 자동차를 중심으로-

▲김성근=컴퓨터 제품과 애프터 서비스에 대한 만족의 원인에 대한 연구-기대 불일치 모형의 원인으로-

▲임승훈=IMF금융지원 체제하의 수출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장 천=자본자유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국가간 정책비교를 중심으로-

▲김정래=자본시장 개방이 국내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한국 증권산업을 중심으로-

▲이영배=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기=상호신용금고의 전자금융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K사 임원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조기식=클라이언트/서버환경에서의 사용자와 프로그램의 권한 상관 매트릭스에 의한 보안 프로그램 구축에 관한 연구.

▲최승호=안전운행 격격자 판단을 위한 지식베이스 건설에 관한 연구

▲박영신=사무직 근로자의 VDT 관련 질환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경관관제실을 중심으로-

▲김종두=복합화물 터미널 기능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창화=도시관리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중심으로-

▲김동휘=외국기업의 국내공정임지선정에 관한 연구

▲김광진=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정성조=공동주택의 Life Cycle 단계별 유지관리 및 Renewal 방안에 관한 연구

▲최충운=주상복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연구

▲최영진=도시재개발지구의 복합개발

▲이철호=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수요함수 추정

▲정만수=해상오염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 교육대학원

▲김택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의식 분석

▲이준영=학교장의 학교경영 양태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희우=초등학교 교사의 교직관에 관한 연구

▲박의열=초등학교 학급담임제에 관한 분석적 연구

▲최영옥=종합사회복지관의 경영진단

▲김소영=심리극적 집단상담이 여자중학생의 인간관계능력에 미치는 효과

▲이진숙=도시와 농촌지역 고등학교의

고민유형과 상담요구 비교분석-서울지역과 구례지역을 중심으로-

▲김해자=유아 도덕성 발달 단계에 기초한 자타카(Jataka)와 그림(Grimm)동화 분석

▲문계습=종교적 사고 발달을 중심으로 한 불교 아동교육 프로그램 연구

▲배영희=유치원 원장의 지도성에 따른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신동식='화법' 교과의 지도요건과 교재분석

▲손기분=말하기 기능 신장의 효율적 방안 연구-중학교 특수 학급 학생의 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김왕식='구복 여행' 담 연구-공간이동 양상과 서사무가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김주환=국어의 피동 표현 분석과 지도 방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 교육을 위하여-

▲이은경=이중취의 발해사 인식-동사, 발해세가를 중심으로

▲김용관=수학적 사고에 기초한 문제설정 수업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용환=고등학교 수학교육에서 문제 해결능력의 신장을 위한 지도방안

▲김정화=다산 정약용의 교육사상연구

▲차생수=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교육에 관한 연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최정림=주희의 리에 관한 연구

▲변종석=존 로크의 재산권 이론에 관한 연구

▲공해준=스피노자의 에티카에 나타난 신에 관한 연구 고찰

▲장동만=호성관 최북의 회화 연구-진경산수를 중심으로-

▲이석현=Postmodernism과 Video art에 관한 연구

▲이일규=한국의 묵죽화 연구

▲최종철=진경산수의 연원과 조정의 작품세계

▲윤민호=조정 박제가 시에 나타난 실학사상

▲김봉준=허웅담 보우대사 시문학 고

▲조상덕=수영운동을 통한 중년여성의 체지방 변화에 관한 연구

▲이현구=청소년의 스포츠 여가활동 참여가 정서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강현식=운동선수들의 등속성 근력에 관한 연구

▲탁민희=교사의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학습지도 향상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황중환=중등학교 학생들의 체력검사를 통한 체육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박병선=스포츠 댄싱의 활동영역별에 관한 조사 연구-직장인 및 성인을 중심으로-

▲신희정=In Memoriam에 나타난 영적 진화론

▲윤덕자=Hemingway 작품에 나타난 사생관

▲정락신=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영어교수법

▲박정숙=위즈워스의 'Spors of Time'과 상상력- The Prelude를 중심으로 -

▲이홍재=William Wordsworth 문학 세

계에 있어서 자연의 기능

▲서영진=목질진흙버섯에서 분리된 Morilla sitophila DGUM 7000의 균학적 특징

▲류지훈=중국어 수업모형의 이론과 적용-고등학교 중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엄태인=아Q정전의 인물로 통해 본 노신의 문학세계

▲최경희=호적의 오사시기 문학론-신시를 중심으로-

▲김용복=육달부의 소설연구-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이상 44명

인문정보대학원

▲김의결=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 베이스를 중심으로-

▲이성수=중소기업에서 성공적인 ERP 시스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김신진=인터넷을 이용한 대민 공공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

▲김창중=시스템 보안대책에 관한 연구-스크리닝 라우터방식 방화벽의 보안 모델을 중심으로-

▲김기권=소프트웨어 국제 품질 평가 기준에 의한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품질 비교분석

▲김종근=인터넷방송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매체환경변화를 중심으로-

▲김민홍=위성방송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고찰-한국의 위성방송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최희숙=대학 이미지광고의 효과에 관한 연구-대학신입생을 중심으로-

▲이석중=선거 텔레비전 토론 방송의 형식에 관한 연구-시민사회의 정치참여 확대 도구로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박대현=개화기 조선어사전의 출판구조에 관한 연구

▲주현미=우리나라 청소년의 출판만화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한·일만화 비교를 중심으로-

▲김정순=어문교열 사례를 연구-1998년 2월 둘째주 종합 best seller 1위 도서를 중심으로-

▲신창명=시간영역 유한차분법을 이용한 L-band 지역통과 필터의 해석 및 설계

▲강성권=VAN 기반의 EDI의 INTERNET EDI의 통합모형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김우형=패션광고사진의 이미지 표현과 특성에 관한 연구-패션전문지 의류광고를 중심으로-

이상 15명

산업정보환경대학원

▲김영대=광다이오드의 구조가 CCD의 칼라분광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원태=AlGaAs/GaAs HBT와 InGaP/GaAs HBT에서 소자구조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모승준=고갈습 플레이애쉬 활용화에 관한 연구

▲서규석=고려볼트의 여유나사 길이에 따른 조임력 평가연구

▲이 진=유스호스텔 건축의 유형과 공간 계획 연구

▲김 철=고려볼트의 볼트길이-지름비(l/d)에 따른 조임력 평가 연구

▲박병일=말뚝기초의 지지력 평가에 관한 연구

▲최낙영=개착식 지하철 구조물 방수 공사의 결점 분석 및 발전적 방행에 관한 연구

▲김길중=핵 폐기물에 대한 의식의 전환에 관한 연구

▲안영배=시판 생수의 위생학적 연구

▲김범석=한국인의 보존제 1일섭취량

▲우재구=대두발효에서 이소플라본 배당체의 가수분해에 관한 연구

▲이종석=미들웨어를 이용한 메인프레임에서의 플라이 언트/서버 컴퓨팅환경 구현

▲정중현=은행 온라인 시스템 연장가동에 관한 연구

▲한승수=웹체제를 응용한 클라이언트 서버간의 데이터 전달 방안

▲이광용=WIRE-CUT 방전가공 조건에 따른 표면거칠기에 관한 연구

이상 16명

문화예술대학원

▲김태정=오정희의 창작기법과 문체에 관한 연구-(의식의 흐름) 소설을 중심으로-

▲김병철=한국여성극극사 연구

▲전세기=무대조명의 역할 변천에 관한 연구

▲남지연=한국영화제작 자본의 투자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대기업 영화제작 자본의 투자 모델을 중심으로

▲이미향=불상도상에 나타난 악기 연구

▲김한승=목조건축 문화재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

▲조 현=한국 석탑의 상징성 연구

이상 7명

지역개발대학원

▲강승일=공기업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도와 조직분단기에 관한 연구

▲이호동=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기존 갈등해결방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적 방안을 중심으로-

▲김낙원=소규모 학교 통·폐합 행정의 효과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경상북도 초등학교 통·폐합 사례를 중심으로-

▲박병진=해병대 영관장교의 리더십 향상방안 연구-상관별 리더십 모형을 중심으로-

▲오동환=조직내 직무만족 결정 요인들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포항MBC 조직구성원을 중심으로-

▲홍준립=한국지방자치의 변천과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부길=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생보산업의 대응 방안

이상 7명

신규 교수 프로필

동국과 함께 세계로 나아갈 주역들



이 종 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졸 동국대 현대문학(문학석사) 동국대 현대문학(문학박사)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희곡이론 및 창작 강의



최 원 옥

(경상대학 회계학과 조교수) 연세대 경영학과 졸 미국 Michigan대 경영학(경영학 석사) 미국 Columbia대 회계학(경영학 박사) 미국 Rutgers대 조교수 세법 및 세무회계



김 기 옥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전임강사) 동국대 한의학과 졸 동국대 원전·의사학(한의학 석사) 동국대 원전·의사학(한의학 박사) 동국대학교 시간강사 원전·의사학



원 용 진

(사과대 신문방송학과 전임강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졸 서강대 신문방송학(문학석사) 미국 Wisconsin대 신문방송학(언문학박사) 서강대 언론대학원 대우교수 방송학(이론 및 실습)



노 경 수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전임강사)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 서울대 전기공학(공학 석사) 미국 Virginia Tech.대 전기공학(공학 박사) 송실대 강사 전력공학



윤 한 중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 충남대 의학과 졸 충남대 의학(의학 석사) 동국대 경주병원 임상직 전문의 혈액종양학 내과



이 소 한

(경상대학 경영학과 전임강사) 서울대 경제학과 졸 미국 Michigan대 경영학(경영학 석사) 미국 Michigan대 경영학(경영학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은행2팀 부연구위원 재무관리(투자론)



이 심 열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전임강사)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졸 미국 U.C Berkeley대 식품영양(영양학 석사) 서울대 식품영양(이학 박사) 서울대 생활과학대 부속연구소 연수연구원 식품영양

퇴임교수 인터뷰

# 그대 변치않는 동국인이여

인터뷰에 응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석운(철학) 교수님의 인터뷰는 신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글씨는 순서는 단과대 순입니다.

편집자

## 57년 교육 인생 ... 교수 아닌 선생으로 남고싶다



문과대 국문과 이종찬 교수

후기 학위수여식이 있는 날, 약속장소를 착각한 기자의 잘못으로 30분이나 기다려야 했던 이종찬(국문학)교수. 북적대는 사람들 틈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에서 기다림에 짜증난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인터뷰를 하기전 이교수에 대해 전해들은 바로는 '교수님'이라는 말 대신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게 한다고 해 기자에게 많은 호기심을 갖게 했다.

"교수는 직함이지 그 안에는 존경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아. 하지만 '선생님'이라는 말 속에는 존경의 의미가 깊게 담겨 있지." 이는 대수롭지 않은 여감차이가 아

니라 학생들에게 권위적인 모습이 아닌 정답과 편안한 스승이기를 바라는 그의 교육 철학이 투영된 습관인 듯 했다.

"내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외교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 '무능력자의 발자취야.'" 똑똑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해 보지만, 자신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외도를 넘보지도, 걸어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초등학교 6학년때 해방이 되자, 학교에서 일본말을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집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서당공부를 접어 지냈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문학을 전공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외도하지 않고 한길만을 정진해 온 것은 그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한문학으로 몸에 밴 선비정신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종찬 교수는 자신의 나이 65세에서 8살을 뺀 57년이 자신의 교육인생이라고 말한다. 배움과 가르침은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이처럼 그의 교육인생은 배움과 가르침으로 똬똬 뭉쳐 결코 따로 분리해 바라볼 수 없는 위엄이었다.

"요즘을 사회가 혼탁하고 무질서한 까닭은,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이 흔들리기 때문이야.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 교육자의 몫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미안할 뿐이네." 이 교수는 퇴임을 하고나서 가장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며 인터뷰를 하고있

는 기자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

"전혀 섭섭하지 않네. 다만 37년간 교직에 있다가 퇴임할 수 있었던게 다행스러울 뿐이야" 이교수는 자신이 퇴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길을 가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며, 대신해서 고마움을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계획이랄게 있나, 그냥 책이나 보면서 지내야지." 그러나 이교수는 후배제자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한시 번역을 할 계획이고 이미 번역을 마쳐 출간에정인 책도 있어 평상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학위수여식을 핑계로 오랜만에 외출을 한 그의 모습은 후배와 제자를 사랑하고 학문에 정진하기를 힘쓰는 청렴한 선비의 모습으로 비쳐졌다. <이>

## 동국, 당당한 외길 인생 걷게 한 소중한 인연



이과대 수학과 김태부 교수

"없었던 사람인양 조용하게 가고 싶은데..." 못내 쑥스러움을 지우지 못하는 김태부(수학) 교수.

"그저 내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걸어왔다고 생각해. 미련도 후회도 없어. 죽는 날까지 할 일이 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면 만족스러울 따름이야"라며 담담하게 퇴임 소감을 밝혔다.

다음 학기에도 여전히 강의를 할 계획이라는 김교수는 학교를 떠나는 것을 실감할 수 없다고 한다. 강의를 맡고 있는 동안은 계속 동국대학의 교수일 것이며 퇴임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육사 출신 장교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와이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으로의 유학 과정 끝에 교직 생활을 하게 된 김교수는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여러 갈래 길 중에서 교직에 발을 내딛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모두 운명인 것 같아. 동국대에 15년이나 강단에 서고 퇴임까지 하게 된 것도 다 인연이지"라며 소중한 인연을 고마워 했다.

15년전 김교수가 처음 강단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비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교과 내용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연구 시설도 현대

적으로 갖춰져 대학다운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대학의 결속이 변해가는 만큼 학생들의 모습이 타산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으며 예전의 보다 인간적인 모습이 그립다고 과거를 추억했다.

교직 생활동안의 신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얼마전야 깨달았어. 어렵게 가르치면 안되는구나, 욕심스럽게 많은걸 가르치려다 정작 중요한 기본 골격을 놓치겠구나 하는걸 말이야"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교수는 요즘 학생들이 학과 성적을 소홀히 한다면서 성실하기만 하면 성적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고, 성적은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 지표임을 강조한다.

더불어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덧붙인다. 우수한 학생으로써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 학교를 빛내고, 후배들의 길 길에 밑거름이 되어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너무 숨가쁘게 살아오느라 보람이나 감동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는 김교수.

그저 부족하게만 느꼈던 강의에 집중해 주고 감사함을 표하는 제자들에게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고 한다.

"15년동안 교단을 지키고 퇴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보다 나를 도와준 사람들의 몫이 컸기 때문이야. 나 혼자서 안될 일들이었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구만."

여행중에 우연히 손에 넣은 격언집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있다는 김교수. 퇴임을 맞은 그의 모습이 초라하지 않음은 부끄러움 없게 외길인생을 걸어 온 당당한 때문일 것이다. <은>

## 제자들에게 변치않는 힘이 될 터



사범대 가정교육과 유영상 교수

오후 한나절이지만 제법 가을향기가 물씬 풍기는 바람부는 날. 유영상(가정교육)교수는 반평생 품담아온 연구실을 떠날 준비를 한다.

"연구실 명패를 떼어내니 이제야 퇴임하는 것이 사실로 느껴지네" 유교수는 공허한 웃음을 짓는다.

미리 집을 정리해 놓아서인지 연구실은 이미 텅비었다. 그 빈 자리가 그리 허전하지 않은 것은 시종일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유교수의 온화함 때문이었을까.

유교수는 식품영양학 전공교수로서 두

번재로 부임한 이래 여학생처장까지 역임하였다. 그래서인지 화제가 한국 여성의 위상으로 흐르자 "여성 스스로가 피해의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당당하게 자기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원래 전공한 학과인 약학과에서 식품영양학과로 탈바꿈 하기까지, 그리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힘든 점이 많은 가운데서 과감하게 학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유교수의 결단력과 자기확신에서 기인한 힘일 것이다.

또한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가 식품영양

학이고 주 내용이 아동의 학교급식, 대학생 급식상태조사 등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보살피는 것이기에 학문에 대한 애착심이 남다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퇴임한다고 해도 학생들 논문심사도 해야하고 비록 것 같아.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나면 그림을 많이 그리고 싶어."

파스텔의 고운 입자 하나하나가 어우러져 곱고 은은한 색채로 캔버스에 번져나가는 것이 아름다웠다고, 그래서 파스텔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미술전에 출품할 정도로 수준급이다.

재임시절을 회고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학생들과 졸업여행을 함께 다녀온 일이라고 한다. 파스텔화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평소와 이치럼 학생들을

푸근하고 친근하게 대하는 유교수의 열린 마음에서 여실히 배어나온다.

"누구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기에 방향을 잡아주는 은사님이 있겠지. 세상사에 지치고 낙담해 지면 나에게 역할모델이 되어준 분이 계셨어. 인생의 또다른 막을 내리고 새출발해야 하는 지금 그분이 생각나." 퇴임한다고 해서 학문을 접어두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해야 하는 교수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제자들에게 작으나마 변치않는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유교수. 연륜만큼이나 쌓여가는 결손의 미덕이 이런 것이 아닐까. 첫인상의 부드러운 느낌을 실어서 유영상교수는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자신의 색을 잃지 않고도 여럿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숙>

8.15 행사 중 구속된 희망새를 만나

### 창작자유 공권력으로 억압하는 정부 맞서 "변함없이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서울대에서 열린 통일대 축전에서 축하공연을 했던 노래극단 '희망새' 대표 조재현씨가 공연을 마치고 서울대를 빠져나오던 중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통일 노래 운동을 대표하는 극단 '희망새' 대표대행 김태광(기술감독)씨를 부산 남산동 사무실에서 만나 조재현씨의 구속 이후 대응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보았다.

-조재현씨의 구속 과정을 설명해 주신다면.

=8.15통일 축전 당시 다른 공연을 위해 서울대를 나오던 중 검문을 통해, 전단원이 경찰서로 후송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조사도중 단원이 집단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후, 대부분의 희망새 단원은 훈방조치지만, 급작스럽게 조재현씨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수감됐다.

-대포 구속에 따른 대응방안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기 위해 통일대축전 공연에 대한 사진자료와 그 동안의 공연 활동 등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 우리가 통일을 노래한다는 이유가 구속 사유가 된다면 그런 헌법에 명시된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이제 까지 보여진 경찰의 조작사건처럼 단체의 순수성을 다른 이유로 얽매려 하는데 대한 방편을 모색중이다.

-격려를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런 희망새의 싸움에 다른 단체들 또한 많은 격려를 통해 함께 하고 있다. 부산지역 단체들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이후 성명서를 내는 일이나 법정 싸움에 있어서도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앞으로 희망새의 공연계획은.

=대표의 구속으로 9월 공연일정은 무기한으로 연기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스스로 단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희망새가 같이 할 것이다. 항상 굴하지 않고 신념을 실천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

전대기련 문화분과 공동기자단

## 대학 길라잡이 달하나 건강에

지루한 장마와 홍수가 스쳐간 뒤, 따가운 햇살이 다시 비치자 개학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대학시절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 봅니다.

먼저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지식 근로자란 일부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터득하고 새 기술과 새 지식으로 끊임없이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배우고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고등교육이 지향하는 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이해력과 적응력, 이를 바탕으로 한 창의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력은 이해력의 기반이 되지만 그것이 목표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암기력이야 컴퓨터만 하겠습니까? 이들 세가지 능력을 배

양한다면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둘째로는 다차원에서 현상을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먼저 시간적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해 외환·금융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현상만 보아서는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난 50여간의 우리 경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변곡점이 있기 마련인데, 정부주도형 경제체제를 새로운 경제체제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세째는 수평적 측면, 즉 범위를 넓혀 보아야 합니다. 울타리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아시아 경제, 전세계의 경제체제에 비추어 보아야 IMF체제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향적 측면입니다. 현상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진정으로는 그

거대한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바람에 찰랑이는 흰 파도가 아닌 그에 가려있는 거대한 물결의 흐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시장경제원리는 경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경쟁은 "최선을 다하도록 당신을 자극한다"고 했습니다. 협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신뢰, 조직내 부서간 또는 노사간의 신뢰, 조직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케네디 대통령의 "만일 사람들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새로운 기계를 발명할 재능이 있다면, 그들은 노동자들을 다시 일자리로 돌아 가게 하는 재능도 갖고 있다"라는 말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세 훈 상경대 정보산업학과 교수

### 98 여성연대 한판

## "여성주의 실현을 위해 이제 첫발을 내딛습니다"

### 성폭력 근절 학칙 제정운동 등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는 한판 벌여

가장 중심적인 모습으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할 것 같고 여자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모습으로 여성들이 서있다.

"여성의 지나친 화장에 대해 많은 남성들은 반감을 표시하곤 했잖아요. 이런 흔한 모습 속에서 저는 그들이 여성의 과장된 여성성 즉 여성의 독립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예쁘게 보이게끔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 화장을 하는 여성들에게서 그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구요.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싶어요. '우리는 너희에게 예쁘게 보이게끔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때의 여성이 케메라 화장을 한 채 춤을 추기도 하고, 여성임으로 인해 당해왔던 불평등과 억압의 한을 풀어내는 살풀이를 벌이기도 하고, 지하철 성추행을 종자해 촛극을 꾸미기도 한다.

지난 21일부터 2박 3일간 열렸던 '98여성연대 한판'에 참석한 1백여명의 대학생들은 22일 밤 12시 40분에도 본교 학생회관 연화원에서 그렇게 한판을 벌이고 있었다.

"중심? 큰? 그런 뜻이예요. 중심에 선 큰 판이요. 대학사회를 비롯한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의 차별과 억압에 대항하는 큰 판이라는 뜻이죠."

이정화(공학계열3) 본교 여성위원회(준) 위원장이 설명한 98여성연대 한판은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필두로 22개

의 여성단체 및 총학생회와 여성위원회가 참가해 여성주의자들의 큰 판을 이뤘다.

"성폭력 근절 학칙 제정운동"과 '대학 여성운동 힘다지기'에 중점을 두었어요. 학칙제정을 위한 전체토론회와 여성운동 대토론회, 여성주의자들을 위한 워크샵 등의 행사들도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야 할 부분을 준비하기 위한 거구요."

연대회의의 관계자는 그 중 가장 열기를 띤 행사는 요즘 대학가 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다룬 '성폭력 근절 학칙 제정운동 전체토론회'였다고 전한다.

"성폭력이 대학사회에서 문제시되기 시작한, 불과 몇 년 되지 않는 동안 우리 대학생들은 학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공동체 내의 성문화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에 대한 탄핵만으로 그 사건들을 무마하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니 대학사회 성폭력은 빈번한 사건으로 자리잡아가게 됐고 우리는 더 이상 성폭력이 일상화되어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을 주장합니다."

연대회의는 자료집을 통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의 필요성과 개념, 성폭력 사건 사례들을 자세히 정리·소개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의문점과 현실적 비판점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1백여명의 대학생이 모여 한판을 벌였다.

들을 조합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본교 여성위원회(준) 이정화 위원장은 본교에서도 지난해 공개화된 2건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학칙상으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이라며 그간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난상토론에서 토론회까지 자신의 몸에 저항의 바디페인팅을 하는 일부터 워크샵까지 여성주의를 바탕으로한 모든 행위가 2박 3일 동안 이루어졌다.

연대회의의 관계자는 "우리가 사는 곳은

여성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주의는 언젠가 실현되야 할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단순한 페미니즘과는 다른 우리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변화해야 할 점들을 지적해 가는 것이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나아갈 길입니다"라며 98여성연대 한판이 '여성주의'를 향한 첫발을 내딛는 행사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 한판은 가장 중심적인 여성이 좋아할 것 같고 남성이 싫어할 것 같은 우리의 행위라고 밝혔다.

최진 기자

### 임권택 겸임교수가 권하는 책

#### 할미꽃은 봄을 세는 술래란다

"언젠가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선대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맞았는지를 아주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천국', '서편제'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정준의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동화, 이정준의 소설 '축제'에도 등장하는 책속의 책이기도 하다.

열림원. 정가 5천원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 토양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써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신앙을 알고자 한다면 읽어보십시오. 생각합니다."

주로 교육과 무속에 관계되는 연구를 해 온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김민희 교수가 엮은 책이다.

집문당. 정가 6천원

#### 한국 무속 사상 연구

"무속을 미신으로 치부하는 오늘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무속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외래종교만을 신봉하고 토속신앙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나라에 들어온 종교들의 근본에는 무속이 바탕되어

#### 만인보

"만민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과거를 눈물겹게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술하고 사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날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죠."

'눈길', '천은사문' 등 주로 불교적 색채를 띤 시를 써왔던 고은 씨의 장시집.

창작과 비평. 정가 5천5백원



# 영상매체비평

## - 영화편

### 해피투게더



“동성애는 진짜 주제를 변주하기 위해 선택된 소품에 불과하다. 이것은 동성애라기보다 인간과 인간의 사랑으로 읽힌다”

지난해 칸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인 '해피투게더'가 드디어 개봉되었다. 동성애가 주제라서 우리 정서에 반한다는 이유를 달고 수입 심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 1년만이다. 나는 이 영화의 주제를 동성애로 판정한 우리나라 영화 심의위원들의 양식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싶다. '해피투게더'의 주제는 절대 동성애가 아니기 때문이다. 변화의 전면에 드러나 있는 동성애는

진짜 주제-소통부재의 고독과 사랑의 상실-를 변주하기 위해 선택된 소품에 불과하다. 그것은 동성애라기보다는, 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 관계로 읽힌다.

국내 개봉된 '해피투게더'는 미국판 97분, 영국판 96분보다 조금 적은 95분 버전이다. 지난해 수입심의회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누드씬은 빠져

있고, 키스씬과 탱고씬 정도만 남아있다. 하지만 '해피투게더'의 영화적 완성도에 동성애씬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화를 끌고 가는 세 인물들의 관계를, 홍콩의 중국반환에 따른 중국인들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다는 정치적 해석으로 읽을 수도 있다. 그런 영화적 독법은 세 인물들(중국-장국영, 홍콩-양조위, 대만-장진)의 의도적 배치 때문에 설득력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해피투게더'를 단순

히 정치적 코드로만 읽어내는 것은, 이 영화를 동성애로만 보는 것과 똑같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홍콩의 중국반환을 다룬 할리우드의 중국계 감독 웨인 왕의 '차이니스 박스'가 알레고리의 경직된 드러냄으로 영화적 탄력성을 상실했다면, '해피투게더'의 서사는 은유적이고 암시적이어서 훨씬 풍부한 울림을 갖고 관객들에게 전달된다. 그 비극적 정서는 부유하는 세 인물들의 일탈과 회귀된 삶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는 데, 삶의 터전에서 뿌리뽑힌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땅은, 고향인 홍콩이나 대만과는 이 지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남미의 아르헨티나이다. 왜 그들은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 그 먼 곳까지 가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변화한 것은 무엇일까?

왕가위(왕영/두기봉, 미술/장수영)은, '이비정전' 이후 최상의 호흡으로 영화가 빛의 예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우쳐

준다. 화려한 일색의 화면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미학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음울한 모노톤의 화면들은 비극적 정서를 더욱 심화시킨다. 왕가위의 다른 영화가 그렇듯이, '해피투게더' 역시 점프 컷으로 부드러운 기승전결식의 이야기 구조를 벗어나 있어서 대중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중경삼림'이나 '타락천사' 처럼 스텝프린팅이나 들고찍기가 빈번히 사용되지 않았고, 대중적 멜로를 중심축으로 한 서사구조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해피투게더'에는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 보여주는 아름다운 상징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다. 공중에서 부감으로 잡은 이과수 폭포의 거대한 물보라나, 빠른 호흡으로 잡혀 있는 도시의 야경, 땅콩의 등대 등은 세 인물들이 만나고 헤어지며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을 드러낸다. 재능있는 감독으로만 여겨졌던 왕가위는 삶의 숨겨진 부분까지 깊이 있게 응시하는 한결 성숙해진 모습으로 변모한 것이다.

음악을 차용하는데 뛰어난 솜씨를 가진 왕가위 감독은 이번에는 아르헨티나의 탱고와 프랭크 지파, 그리고 해피 투게더를 선택했다. 특히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은 이미 켈리 포터 감독의 '탱고 레슨'에서도 사용된 바 있는데, 애절한 사랑을 정서적으로 전달하는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영화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존재양식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에 닮아 있다. 창조력 있는 정신만이 살아남는 것

하재봉 영화평론가

### 알림

이번호부터 영상매체비평 필진이 아래와 같이 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영화편 하재봉(영화평론가)  
- TV편 홍성대(문화과학편집위원)  
- 광고편 양웅(금강기획 차장)

# 너희가 '동약'을 아느냐?

## 학교 · 학생 무관심 속 잊혀져가는 동약정신

“계산관 옆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학교에 있는 동약사전에 관해 묻는 기자에게 국어교육과 한 학생은 모르겠다고 머리를 긁적인다. 사실 본교 만해사비가 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반면 계산관 앞에 서있는 동약사단은 장소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얼마전 이 사단의 주인공인 동약 이안눌 선생을 다룬 논문이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발표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현재 국어국문학부 강사를 맡고 있는 김상일씨로 그는 '시가 좋아서요'라며 동약을 연구하게 된 동기를 간단히 밝힌다. 그리고 안타까운 얼굴로 덧붙인다.

“그런데 우리 학교 사람들이 동약 선생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30여년 전, 동약에 관해서라면 자기가 공인하는 본교 국어국문학부 이병주 명예교수가 우리학교를 동약이라 이름하고 동약의 뜻을 본교에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학생들은 동약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모르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실정이다.  
“특히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냥 많은 학생들이 쓰잖아요.”  
영문과 한 학생의 말처럼 요즘 동약이라는 말은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있는 듯하다. 이 시기에 나타난 김상일씨의

논문은 그 의미를 찾아보는 중요한 보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동약 이안눌 선생은 조선 중기 4천여 수의 시를 지은 선비였고, 그의 시는 서민들의 삶을 노래하는데 주력했다고 한다. 이런 동약선생이 문인들과 시를 짓던 곳이 본교 일대이며, 선생의 집이 있던 곳 또한 현재의 학생회관 자리이다.  
동약이 죽자 그의 후손들이 계산고시학사 자리에 '동약선생사단'이라는 여섯 글자를 새긴 사단을 세웠으나, 계산고시학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많이 훼손되어 현재는 잔해를 수거해 박물관에 옮겨 보관하고 있다.  
“수년전 계산고시학사를 신축하면서

이 유적을 잘 보존하고자 하였으나 오랜 풍상으로 사단이 훼손되어 이 비를 다시 세운다. 우리 동국인들이 동약이라는 이름과 동약사단의 유래를 잘 알게 하고자 이 돌을 세워 그 뜻을 기리노라”  
본교에서는 다시 동약의 정신을 기린다는 뜻으로 계산관 앞에 비석을 세웠다. 그러나 한번 사라진 후 다시 세워진 비석을 찾는 이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동약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을 때, 혹은 사단을 다시 세웠을 때의 마음으로 현재 동약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욕심일지라도 지금은 그 작은 욕심을 실현해보는 동약인이 절실한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박영실 기자

### 동약 이안눌의 삶과 시

### '민중적 시각으로 세상을 산 소박한 선비'

동약(東岳) 이안눌(李安訥 : 1571-1638년)은 조선조 문학사에서 한문학이 가장 융성했던 목릉성세(선조 때 문화이성대했음을 일러 가리킨다)의 시인으로 이름이 높았다. 이안눌은 평생 4천여 수의 시를 지었는데, 거기엔 조선 사대부의 상투적인 유교적 이념이나 풍류적 감흥만이 아닌,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 당대의 아픔과 희망을 높은 예술적 형상수법으로 승화시켜 노래한 시들이 적지 않다. 때문에 선생의 시는 중세 지식인 시의 관념성이란 일정한 한계성도 보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도 불러 일으키며, 때론 숙연함까지 짓게 한다.  
선생의 생애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전란의 시대를 걸쳤다.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한 정쟁은 선생 자신은 물론 동시대인들의 삶의 뿌리를 뒤흔든 고통과 상처의 근원이었다. 그리고 계속되는 자연의 재앙과 반성할 줄 모르는 상층의 정치적 분쟁은 국가의 기반인 민중들의 삶을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하였다. 이때 선생 또한 격분과 자신의 처지로서는 어찌할 수 없음에 대해 절망하기도 하지만, 사대부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통렬히 반성하여 국가의 재건과 민중 구제에 혼신의 힘을 다한다.  
임진왜란 뒤, 1599년 과거에 급제한 선생의 벼슬길은 문장력에 바탕한 외교직이나 지방 백성들의 삶을 관장하는 목민관이 대부분이었다. 합경도, 충청도, 경성도, 전라도, 경기도 등 주로 전쟁의 피해가 많았던 곳의 백성들의 삶을 재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의사로 또는 목수로 자임하면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상처받은 백성들을 치료하고 비바람을

막아 주었다. 선생은 한 지방을 통치하는 목민관이면서도 스스로를 백성들에게 고용되었다는 뜻에서 '용인'이라 하였다. 때문에 “남들은 벼슬을 영광대 하나 나는 걱정이 깊어, 밤에는 잠 못들고 낮에는 신음하는 신세, 불날 잠깐 비 개어두는 가뭄들까 염려스럽고, 여름날 매우 뿌릴 땀 잠마질까 두려웠다. 뜨거운 햇볕아래 감매기 보면 넓은 집이 땅에 걸리고, 엄동에 베는 소리 들으면 겹이 불이 부끄러워.(府倉晝穽 中에서) 라고 하였고, “사포여, 많이 드소서 하지 말라. 민가에선 굶고 있지 않겠나? 차라리 내뭇에서 퍼들 내어, 그대들 순갈에 떨어뜨려서, 노인 아이 제 각기 배불리 마셔, 굶는 것도 갈증도 없었으면. (‘이란관이 준 시에 차운하여’ 중에서) 이라고 하였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백성들에 대한 선생의 태도가 단순한 동정이나 박애주의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선생의 관심은 백성들을 관장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국가의 안위는 곧바로 민중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었으므로 임금의 편협한 생각이나 조정의 잘못된 국가정책, 이민족의 침입에 우왕좌왕하는 상층의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과 풍자를 서슴치 않았다. 이에 선생의 거취는 항상 위정자들의 감시 대상이 되었고, 선생이 뛰어난 문장력과 재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지방관이나 임시직으로 떠돌았던 것이다.  
이렇듯 이안눌의 시는 자연재난과 전쟁, 정치적 분쟁 등이 극심한 시대를 살아가는 중세 지식인의 고뇌와 우환 등을 담았기에 참울한 정조를 띤다.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아가려는 의지를

담았기에 웅장한 아름다움을 느끼게도 한다. 또한 국토와 역사에 대한 관심에서 가운데에 끌어들이고, 시어 사용에서도 조선적 지명이나 인명 등 고유명사를 경향적으로 써서 조선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선생의 이러한 시풍은, 문학사적으로 전 시대에 최경창, 백광훈, 이달 등 삼당시인들의 개인적 정서표출에 매달린 얇은 주제 의식과 나약한 기상과 들뜬 시풍을 극복한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실학 시대에 이르러 일련의 시인들이 민족적 정서를 발견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시화하려는 이른바 '조선시풍' 운동에 선구자적 의의를 갖는다.  
이같은 이안눌 시의 주제 의식은 벼슬에 나아가기 전부터 다져진 것이었다. 이제 동국대학교의 터 한 편을 노래한 선생의 시를 보자.  
  
동원에서  
기이한 새 그윽한 꽃 형제처럼 우애로운데  
영하니 한가롭게 앉아 내가 나를 잊는다.  
송그늘 한낮인데도 서늘함이 뼈에 스미고  
산빛은 막 개어 푸르름이 살갗을 때린다.  
만물에 귀천이 없음을 알겠거니  
백년 인생 영광과 시대를 말하지 말라.  
누구로 하여 왕미힐의 솜씨를 빌어다가  
동원에 숨어 사는 이내 모습을 그려볼까?  
  
이 시는 얼핏 도가풍으로, 숨어 사는 이의 소극적인 삶을 노래한 작품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반복해서 읊조리면 화자 자신의 처지와 자연의 생명이 맺어지며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의 경지와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과 자부심을 드러낸 시임을 알 수 있다.  
당시는 병란의 때며, 정치적 분쟁의

시대였다. 이에 일각의 양심적 사대부들 간에 반성의 기운이 없지 않았지만 상층에서 벌어진 권력잡기의 싸움은 여전했고, 그 결과 선생처럼 뛰어난 문장력과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이 깊이 막혀 좌절하거나 혼탁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은 계속되었다. 선생은 한 때 자신의 뛰어난 재주가 빌미가 되어 무고로 과거시험을 볼 수 없게 된 적이 있었다. 과거는 조선 사회에서 사대부가 벼슬길로 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거령은 재주 발랄하고 쾌기넘치는 젊은이에게 날개를 꺾어버리는 격이었다. 선생은 오히려 그런 자신의 처지에 대해 절망의 눈에 빠지지 않고 자신과 주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래서 송그늘 속에서 느끼는 한낮의 공기는 뼈 속을 스미는 것이고, 산빛은 살아서 자신의 살갗을 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 있는 자연물 하나 하나가 자신에게 똑같이 구겨날 따름이다. 그래서 정치적 또는 벼슬의 승강 등으로 인한 자신의 인생의 영광과 초월함에 신경 쓸 일이 아닌 것이다.  
그는 당대의 실상을 균형있게 짚으면서 시대를 건지는 일에 동분서주하던 노숙한 관리나 이민족의 침입에 격분한 젊은 지식인들과 시사를 만들어 함께 하였던 것이다.  
우리 동국대학교 언덕을 동약이라고 이름한 것은 바로 이안눌 선생을 기리는 뜻에서 그분의 호를 따라 붙인 것이라고 한다.  
  
김상일  
국어국문학부 강사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마련된 행사로 문화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더불어 우리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준다. 개막식날에는 문화충격 토론회도 마련돼 외국인들의 한국인들에 대한 날카롭고, 신랄한 지적을 통해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다. 행사기간중 라틴영화제도 열린다.  
정동극장에서 오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 새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다

서울 국제연극제 참가 작품으로 극단 목화 배우들이 도전한 작품. 운동권으로 상징되는 집단주의 문화와 X 세대로 상징되는 개인주의 문화의 충돌, 서서히 시간의 지편으로 옮겨가는 80년대와 세기말의 혼란으로 몸살을 앓는 90년대 문화의 충돌. 생지 않은 두 시대, 그러나 억압과 혼돈, 방황이란 공통분모를 꺼안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9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대학로 성좌소극장에서. 745-3966

### 메아리

### '대학의 죽음'에 붙이는 짧은 생각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취직과 앞으로 살 걱정을 하는 그 나라의 대학생들을 보고 이상을 잃고 일상에 젖어들어 가는 그들의 모습에 탄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점점 대학생활을 끝마쳐가면서 사회를 받아들이는 관용을 베풀고 세상에서 따뜻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친구들과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삶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한 목숨 바칠 준비를 하는 수 많은 모습들을 보고

느끼면서 다시금 대학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BANMUN 하이텔 ID:763622.  
대학을 들어와서 한 시절을 보낸 이라면 폭풍 속에 사춘기를 혹은 첫사랑을 보낸 이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있어 그 짧은 시절이 무엇이었는지 한마디로 정의내리려 할 것이다.  
▲개강을 즈음해서 통신을 들락 거리다 보면 이러한 정의를 내리려는 움직임이 한 층 두드러짐을 느끼게 된다. 학내

운동권문화에 대한 재언부터 대학의 정체성에 대한 신랄한 비판, 종국에는 한국 사회에서 '문화'란 것이 얼마만큼 힘을 갖고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조금은 감상적인 글 뒤에는 어김없이 대학문화에 대한 무수한 회의와 바람들이 쓰여있는 것이다.  
▲그러다 가끔 몇몇 대학생들은 한순간에 깨달려 왔다고 전한다. “검토하는 녀석, 죽을 때까지 실전에 사용할 수 없는

기술에 목숨을 건 놈. 그러나 문화를 정의할 수 없는 검토하는 녀석은 그토록 화려하고 흥미 진진한 '젊음'이라는 대학문화에 내게 보여준다. ID:푸른유월.  
정의하려 했던 대학문화의 이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 옆의 한 친구가 대학문화의 실체로 서 있다는 것. 그것은 호기심을 동반한 탄식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는 확신을 얻는다.

대학문화는 결코 죽지 않았다. 대학을 교화되기 위해 들어왔으나 나쁜 것만 배워가는 '교도소'라고 악평했던 하이텔 ID 한아비나가 대학문화의 삶과 죽음을 고민하는 사이 대학은 하나의 비판점을 찾았을 뿐이며 이는 속제로 누군가는 해결할 것이다. 우리가 대학문화의 실체를 알기위해 한사코 고민하는 사이 대학은 푸르려왔다고 한다.  
최진 문화부장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TEL: 2603491-2 / (0561) 7702057-8 FAX: 2791270 PC ID: dgpress

소나기

제2의 건국



△ impossible 아 우리가 제 2의 건국대나!?! 동국대다!!!

△ D.J의 건국

△ 제2의 건국이 아닌 제 2의 문민독재!!! 제 2공안 탄압!!! 제 2정문화!!! 숫자 2는 싫어!!

△ 제2의 건국? 그렇다면 제 1의 건국이 있었다는 얘기? 그러나 내가 아는 한반도에는 분단만이 있었을뿐...

△ 제2의 건국대 사태???

△ 제1건국=비민주화 와 경제파탄. 제2건국 때는 또 뭘이 하지 않기를.

△ 정치, 재벌, 경제사범을 제외하고 또 건국하면 뭐하나.

△ J의 건국, J 들어가는 사람. 뺏어 먹으려 얻어 먹으려 하지 말고, 잘 좀 해보소.

△ J 스치는 바람에~, 건국과 개혁 스쳐 지나가지 말고 부딪혀 지나가길.

△ 제2건국 하면 뭐해!

△ 제2 건국을 누가 했노! 단군이 언제 또 내려왔나?

△ 동국은 제2건국 안하냐?

△ 새롭게 단장했지만 필요없는 쓰레기는 어디로 버리나!

△ 제2의 건국, 서민들에게만 강요할까!

△ 언제 제1건국이 이뤄지거나 한건가.

△ DJ만의 건국이 되질 않길.

△ PJH=새마을 운동, JDH=정의사회 구현, KYS=세계화, KDJ=제2건국. 또다른 통치 이데올로기 인가?

△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도 제2건국에 포함되는 건가?

△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코리아!

△ 경제위기만 잘 헤쳐나가면 새로운 건국은 저절로 이뤄지는 거겠지요.

△ 위로부터의 개혁이 절실한 때입니다.

△ 제2의 건국은 제대로 합시다.

△ 부끄러운 과거의 답습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건국이길 바란다.

△ 나라가 새로 스러면 경제도 구조조정, 대학도 구조조정!

△ 다 때려쳐!

△ 제2의 건국은 분단 50년.

말뿐인 '수요자중심' 교육 재입학 제도 개선해야

95년 11월에 군대를 갔다가 이듬해 10월 말에 휴가를 나와보니 뜻밖의 일이 발생하였다. 제적! 한 선배의 귀뜸으로 알게된 제적은 집안 식구 누구도 전혀 알지 못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학교측에 문의하자 휴학 신청단의 일반휴학을 병사휴학으로 변경하려면 입영통지서를 직접 가지고 찾아와야 하고, 이미 "약관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 집이 이사도 가지 않은 상태인데 제적된 사실을 아무도 접할 수 없었다. 만약 알았다면, 군대에서 확인증이라도 보내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순전한 개인의 잘못이니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신청하라고 "결원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1학과와 2학과에 두 번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불행히도 결원이 없어 계속 대기중인 상태다. 96년 1학기부터 편입학 자율화조치로 인해 매년 700~800여명을 편입생으로 휴학생, 제적생 등의 결원을 대체한 까닭에 오히려 우리학교는 정원을 초과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상태에서 결원이 생길 가능성은 '가뭄에 콩 나듯' 할 뿐이



98대한민국 서예대전 대상작 : 죽 / 이원동(미술포, 86출)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역교과 한지영! 생일축하해...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날 이해해주는 널 사랑한다. -역교과 이쁘고 귀여운 소녀

△9월 3일은 사회학과 무대포 영아 언니의 생일입니다. 모두들 축하해주셔용. 그리고 남자 하나 점지해 줘시다. -오정 박

△8월 28일 문과대의 작은 거인(정말 작아요!) 성진 오빠의 생일입니다. 벌써 스물 다식이라요 마니 마니 축하합니다 요~ -문과대 종전미마

△공·정대 노래패 목격성이 9월 5일 창립제를 합니다. 9살 목격성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S.F.

수고하셨습니다.

△98 상반기 통상감사 하느라 애스신 중앙감사특별위원분들과 학생회 일꾼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요~

어서 위의 경우처럼 학칙을 잘 몰랐거나,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제적이 된 학생들을 구제할 방도가 없다. 바로 여기에 학교측은 편입생이 정원에 누적으로 증가된 상황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재입학 희망자의 학적을 '결원과 상관없이' 즉각 보장해야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한 말뿐인 재입학제도도 정원에서 0.5%(1만명 기준시 50명) 정도의 여석을 남겨 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이뤄야 한다. 이것은 교육 기회의 보장과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김보균 문과대 철학과

현 성적공시제 불만 시기성 등 문제산재

한 학기를 마감하고 그 동안의 자신의 노력을 측정하는 '성적'은 학생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우리 대학의 학점제도는 상대평가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 때로는 자신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어처구니 없는 성적이 나오기도 한다. 학점 공시 기간을 두어 학생들에게 미리 성적을 알려주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학과 동시에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완결된 성적을 받아보는 학생이 대부분이고 이때에는 성적을 고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학점 공시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의 편리대로 학점이 공시되기 일쑤여서 눈치껏(?) 부지런히 학교를 돌아다녀야 자신의 학점을 알 수 있다. 이때에 성적에 문제가 있어서 방문하러하면 "자택으로 가셨어요. 그쪽으로 연락해 보세요.", "외국 나가셔서 다음 달이나 되어야 오실꺼요" 등의 답변을 듣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외국어 영어 과목을 수강한 한 학생은 성적에 이의가 있어 교수님께 항의전화를 했다. 교수님의 답변은 충분히 A+를 줄 수 있었으나 상대평가가 보니 A+이 너무 많아서 A0로 내렸는데 A0도 너무 많아서 B+로 나왔더 미안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다음에 중급과목을 신청하면 꼭 A+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학생, 저학년들의 비애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학점공시제도는 교수님들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컴퓨터상의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 또한 성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이 제도가 과연 그 취지

에 맞게 실행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지...

일괄적인 성적공시와 그 기간에는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교수님들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거둘려는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장연순 법정대 법정학부

그릇된 사회현실 타파실천

보다 구체적인 현실속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은방울 학생회 소속 민중문화 연구회에선 '실업과 빈곤의 시대, 강요된 전망을 넘어 자신의 미래를 거부하라'란 슬로건 아래 '98 정치학교'를 개최했다. 신자유주의 시대, 초국적 자본의 등장과 경제위기,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 그리고 그 구조조정에서 나온 폐해들.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지끈 지끈 거리는 문제들이었다. 마치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집에 분무기를 뿌려내는 현상처럼 내겐 '운동' 그리고 '학습'이란 것이 전세계적인 경제구조 아래서 아무 소용없는 시도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거대한 자본의 구조아래, 또한 그 예따른 경제위기 속에 그리고 경제위기를 타파하고자 만든 구조조정 아래, 아무리 우리가 그 구조조정의 폐해를 역설하고 타파하고자 해도 세계적 경제의 제도 속에 선 한낱 몸부림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일단 내 자신의 생활에 충실하며, 도서관을 오가면서 학점관리에 신경쓰는 것만이 최선의 방침이라고 생각해 왔었다. 그리고 정체되어진 학생운동의 발전의 미비성과 운동권 학생들의 의식조차 불분명하다고 느껴왔기에 이 정치학교에 참여했을 때도, 약간은 냉소적으로 또 한편으로 막막함과 길게 배긴 공허함을 가지고 참석했었다.

그러나, 이 2박3일의 기간은 나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었고 이제껏 아무런 거림없이 당당했던 내 사회체제에 날 카로운 부끄러움을 던져주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에게 부여된 책임임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치학교에서 강연했던 강사의 말처럼 단순히 구조조정을 타파하라는 구호보다는 우리에게 보다 시급하고 구체적인 대안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구조조정 정책이 반영되어 있는 학부제 문제를 들 수 있다. 커다

동문칼럼



김경길

(영문 84 졸, 신라출판사 대표)

20대, 미래준비의 가장 중요한 시기

남만·우정·사랑·학생운동·싸움 등 다양한 캠퍼스 문화가 존재한다. 캠퍼스 생활에서 체득하는 여러 가지 경험은 물론, 멋진 추억이자 삶을 윤택하게 하는 순기능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의 탐구일 것이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학문을 연마한다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은 단연코 없다.

체력과 기억력이 왕성한 20대의 대학시절은 학문연마의 절호의 기회다. 기회와 강물은 사람이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일반적 의미의 학문은 무엇인가?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서점가에 진열돼 있는 수많은 책들은 교양서적이거나 흥미거리 소재일 뿐이지 학문의 범주에 들지 못한다. 특히 법학·사회학·경제학·인류학 등을 공부할 것을 권한다. 좋은 책을 골라 5회독 정도 한다면 지식체계의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전공에 관계없이 이런 공부는 대학인으로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재차 강조하고 싶다. 학문 이외의 모든 가치는 부차적이다.

이외에 컴퓨터 상식, 원만한 인격의 형성, 인간적인 매력, 특기의 개발 등 중요한 일들이 많다. 사회인으로서 뿐만아니라 직장인으로 갖춰야 할 소양들이다. 꼭 취직을 해야 한다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도 있다.

공부를 더 하거나 사업을 하는 발상도 필요하다. 실패하면 어떤가. 절망은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에 있다는 말을 유념해 보자.

나는 졸업생으로서 재학생들의 형태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실망할 때가 적지 않다. 특히 대학생들의 상당수가 기성세대 못지 않게 부패해 있다는 것이다. 금전적인 이익을 순수와 바꾸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다. 불행한 일이며 유감스러운 현상이다. 학창시절에 약간의 이익을 챙기면서 우월하는 형태는 정말이지 반성해야 한다. 지난번 6·4지방선거 때 양쪽 진영으로부터 돈을 챙긴 학생들을 나는 목격했다.

대학인의 절대적 가치는 학문의 탐구에 있으며, 대학인의 양심은 순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다.

란 물체를 무조건 넘어뜨리겠다고 달려드는 것 보다는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며 세력의 양을 넓게 펼쳐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소수의 집단들이 해 나가는 운동이 아니다. 보다 구체적인 현실속에서 그릇된 세계에 이의를 제기하며 좀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자는 것이 학생운동이라 생각하고, 이는 모든 학우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류주원 상경대 경성학부



김경일 (11)

**알림**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9월4일까지 이번호(1252호)신문을 읽고 평가서를 작성해 본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상 : 대학원생·교직원·학부생(2학년이상)

다양한 학생·보리수 식당 차림표

월	생선까스(1300) 양송이볶음밥(1200) 열무비빔밥(2000) 비프스튜(3000)
화	한치회덮밥(1500) 튀김덮밥(1200) 오징어볶음(2500) 미트볼덮밥(2500)
수	불고기백반(1500) 연두부백반(1200) 삼선볶음밥(2000) 버섯덮밥(2500)
목	김치볶음밥(1200) 순대야채볶음(1300) 비엔나 야채볶음(2000) 돈갈비구이(3000)
금	소고기야채밥(1300) 월류음(1300) 짜장밥(2000) 생선까스(2500)
토	새우볶음밥(1300) 돈까스(2500)

(단위:원)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월	우렁이된장찌개(2800) 독배기불고기(3000) 연두부찌개(1200) 제육덮밥(1300)
화	소고기전골(3000) 계장백반(3200) 갈비탕(1500) 양송이볶음밥(1500)
수	골장전골(3000) 목회(3000) 오징어소면무침(1300) 미파밥(1200)
목	조개탕(2500) 정식(3000)
금	후라이드치킨(1500) 후랑크야채볶음(1300) 참치찌개(2800) 낙지볶음(3000)
토	소고기볶음밥(1300) 만두탕수(1300)

(단위:원)

보러와요~! 배우들 파이팅!  
-준(?) 연극반

△9월1일 예측불허 경기모임입니다. 불상 앞에서 꼭 나오세요.

동악장터

△PCS 급히 구함! 연락요망 015-8440-3387

은방글

축하합니다

△이선경(법정97) 8월 24일 생일 축하한다. 월월이(이관형 법 95)도 함께.

-어여쁜 기획  
△미미와! 편입시험 합격 축하하고, 우리 열심히 생활하자! 그리고 1등감자 미인대회 나가자구.

△8월 26일 오늘은 태립이 생일! 축하한다. 장미꽃 스무송이와 키스, 향수 못 받아서 서운하다. 니 능력탓이라 생각해... 끝으로 생일한번 더 축하해. -윤혜, 진영

△민영이형! 복학을 축하드리고요, 경주 교도소가 많이 썰렁할 것 같네요. -용

△주영아! 복학을 축하한다. 안 본 사이, 플라보게 살이 빠졌더구나.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았으면 흑흑흑. 우리 축하주나 한잔 잔하게 하자! -선영이가

△개봉박두! 오는 9월 5일은 경희가 귀 빠진 날이래요. 우리 모두의 연인 경희를 아시는 분들은 그녀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걸 잊지 마시디! -94학년 왕초

수고했습니다

△오실업과 빈곤의 시대, 강요된 절망을 넘어 자신의 미래를 거부하라! 98정치학교를 준비하고 훌륭히 치뤘네나라 수고한 학생회관 감동이 96학번들아. 우리 열심히 투쟁하자!

알립니다

△고전음악감상실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와 주세요. 학생회관 2층인가 다 아시죠?

-콘돌

△8월30일 있을 전국대학생마당놀이에 참가하는 '불취' 20여일이 넘는 전수기간 동안 고생 많았어요. 불취 파이팅.그리고 사랑해요. ps:다른 불취인 적지 말아주세요. -19기 진희요

열심히 합니다

△야간강좌 학우 여러분, 2학기에도 더욱더 하시는 일에 정진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야간강좌총학생회

△현주야! 근로장학생 떨어졌다고 너무 낙심마라. 살다보면 좋은 날도 올지 누가 아냐. 우리 잡고 열심히 살자. 참다 안되면 할 수 없고. -머털도시 친구

그리고...

△지금은 헤어진 같은 추억 간직한 그녀에게...2년 2개월 동안 아니 영원토록 소중한 간직할게 널. -불교 98

△동국학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피같은 돈으로 이번 학기도 무사히 등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합시다. -나리와 학교를 걱정하는 이가